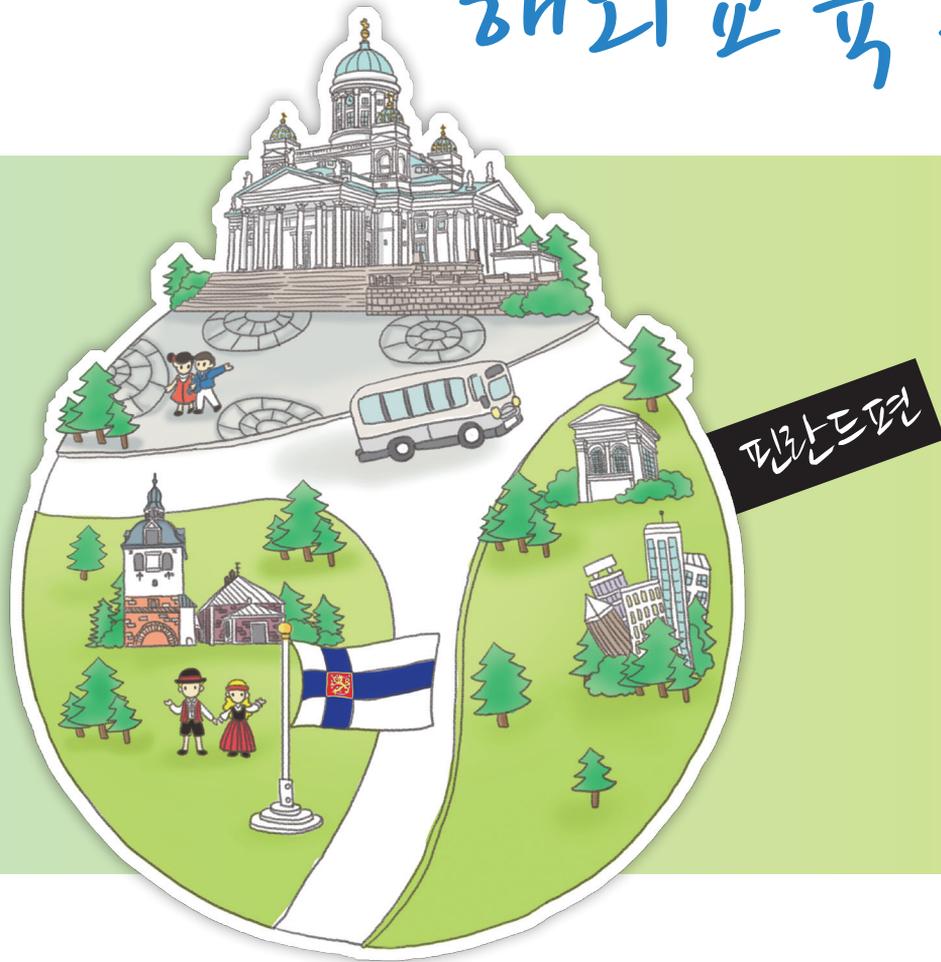


2013년 해외교육동향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호주
일본
중국



교육정책분류

- 교원정책
- 입시/평가
- 교육복지
- 교육개혁
- 교육과정/교수방법
- 학생생활지도
- 특수교육
- 직업교육
- 영재교육
- 평생교육
- 교육재정
- 교육정보화
- 학교안전
- 학부모
- 교육시설
- 학교평가
- 기타

유아교육

1	운동 부족과 비만한 유년기를 보낸 학생은 학교 성적도 저조해	학생생활지도, 학부모	1
2	유치원 규모 대형화 추세	교육복지, 교육개혁, 학부모	1
3	"많이 노는 아이가 건강하다"	기타	2
4	아동의 협상 능력은 유치원부터 장점으로 작용	기타	2
5	2016/2017년 유아와 기본교육에 대한 핵심교과과정 개편	교육과정/교수방법	3
6	사립 신설 어린이집에 이용되는 육아 바우처 시스템	교육복지, 교육재정	3
7	교육위원회, 국민들로부터 유치원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	교육과정/교수방법	4
8	아동과 학생복지 및 안전을 위한 자료 배포	학교안전, 교육복지	4
9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 증원	교원정책	5

초·중등교육

1	핀란드 경찰, 미국의 교내 총기난사 사건 이후 인터넷 감시 강화	학생생활지도, 학교안전	6
2	태블릿PC는 교육의 미래	교육과정/교수방법, 교육정보화	6
3	학생들, 자원 봉사나 모금 활동에 대한 관심 높아져	학생생활지도	7
4	국회의원, 중학교 졸업 성적표에 태도 성적 재도입 필요성 강조	입시/평가, 학생생활지도	7
5	고등학교에도 전문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화 예정	교육개혁, 학생생활지도, 교육재정, 교육복지	8
6	휴대폰과 스마트 스티커를 이용한 학습법 주목받아	교육과정/교수방법, 교육정보화	8
7	시골학교, E-교재에 대한 만족감 높아	교육과정/교수방법, 교육복지, 교육정보화	9
8	학생의 무단결석은 학부모의 범법 행위로 처벌 가능	학부모, 학생생활지도	9
9	평가는 시험성적, 수업태도, 생활태도 고려해 결정	입시/평가, 학생생활지도	10
10	학부모, 1일 학생으로 수업 참여	학부모	10
11	직업학교, 일반 시민에게 서비스와 제품 판매하며 학생 기술 제고	직업교육, 교육과정/교수방법	11
12	"중학교도 학급제로 편성되어야"	교육복지, 교육개혁, 교육재정, 학생생활지도	11
13	학교에서 인터넷 예절과 사용법 교육 실시	교육과정/교수방법, 교육정보화	12
14	핀란드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에 사용하는 경우 적어	교육정보화, 교육과정/교수방법	12
15	핀란드 학교 건축, 라이프사이클 모델 채택으로 주목 받아	교육시설	13
16	학교 예산을 절감할 때는 주의가 필요	교육재정, 교원정책	13
17	교재의 재활용과 E-교재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의견 늘어나	교육과정/교수방법, 교육재정, 교육복지	14

18	학교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 늘어나	교육정보화, 교육과정/교수방법	14
19	중학생, 직업고등학교 진학을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선호	입시/평가, 직업교육	15
20	청소년들, 인터넷 왕따 문제로 고민 늘어나	학생생활지도	15
21	학교 전문상담교사의 부족, 사설 기관 하청을 통해 해결 노력	학생생활지도, 교육복지	16
22	아동의 스트레스와 피로감 늘어나	학생생활지도, 학부모	16
23	'학교 할아버지' 학생들에게 큰 인기 얻어	학생생활지도, 교육과정/교수방법	16
24	고등학생 연합회, 개정 교육법은 학생의 권리 침해	학생생활지도	17
25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의 기본 암산 능력 떨어져	입시/평가	17
26	아동/청소년의 20%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복지	18
27	헬싱키 시 소재 중학생들에게 학교 급식 인기 없어	교육복지	18
28	학생 처벌 강화하는 법안 준비 중	학교안전, 학생생활지도	19
29	학생을 발로 차서 해고된 교사의 처벌에 관한 논의 활발해져	교원정책, 학교안전, 교육개혁	19
30	'현상 수업'이라는 새로운 교육방법이 주목 받아	교육과정/교수방법	20
31	학생들의 신체 활동이 늘면 면학 분위기가 좋아져	학생생활지도, 교육과정/교수방법	21
32	"학교는 학부모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	학부모	21
33	"교사의 권위 추락, 심각한 결과 초래"	교원정책, 학생생활지도, 학교안정	22
34	수도권, 방과후학교 지원자보다 자리 모자라	교육시설, 교육복지	22
35	학교와 가정 연결해주는 인트라넷 내용 누수	교육정보화, 학생생활지도, 학부모	23
36	자물쇠와 금속 탐지기는 학교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아냐	학교 안전	23
37	학교폭력 급격히 증가	학교안전, 학생생활지도	24
38	스마트폰, 학교 금지품에서 이제는 교육 교재로 활용돼	교육정보화, 교육과정/교수방법, 입시/평가	24
39	원거리 교육으로 아픈 학생도 정상적 학교생활 가능	교육정보화, 교육과정/교수방법	25
40	"유급은 학생을 위한 것",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	입시/평가, 학부모	25
41	핀란드 정부, 교사에게 학생 소지품 조사할 권한 부여 예정	학생생활지도, 교원정책	26
42	2000년대 핀란드 최고의 고등학교 선정	학교평가, 입시/평가	26
43	고등학교에도 초·중학교와 동일한 심리 상담과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예정	교육복지, 학생생활지도	27
44	몇 년 후 수학 교사 부족 현상도 나타날 듯	교원정책	27
45	노동부 장관, 의무교육 기한의 연장 주장	교육개혁	28
46	핀란드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교육과정/교수방법, 교육정보화	28
47	"학교를 감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학생생활지도	29
48	학부모가 학교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 권고	학부모	29

49	진로탐색을 위해 의무교육을 더 연장해야 하나?	교육개혁, 직업교육, 교육과정/교수방법	30
50	과학교육의 발전을 준비하는 실무진	기타	30
51	교육문화부 장관, 디지털 학습 환경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활용 권장	교육정보화	31
52	일반고와 직업고를 위한 복지와 생활기술 프로그램	교육복지, 학생생활지도, 학교안전	32
53	의무교육 이후, 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더 마련	교육과정/교수방법, 교육복지, 평생교육	32
54	현직 교사 4명 중 1명은 가르치는 분야를 바꾸고 싶어 함	교원정책	33
55	파견 교사가 학교에 진출	교원정책	33
56	교육에서 임시직이란 있을 수 없다	교원정책	34
57	학부모들, 지역사무소에 학교실내공기 문제에 관해 불만을 토로함	교육시설, 교육복지, 학교안전	35
58	교사의 고용계약	교원정책	35
59	교육 복지와 평등 관련 법안: 교사의 권한 강화 vs 학생의 자율성 보장	학생생활지도	36
60	기업의 현장학습으로 인해 학교의 직업교육과정은 축소	직업교육	37
61	과학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문화부의 새로운 지침	교육과정/교수방법	38
62	조사결과, 학생의 연산능력은 향상되었으나 수업태도는 안 좋아짐	입시/평가	38
63	의무교육 연령 연장	교육개혁, 교육복지	39
64	대다수 학교에서 학교와 가정의 날 행사를 기념함	학부모	39
65	조사결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상승	교육복지, 학생생활지도	40
66	교육예산 삭감으로 직업고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됨	직업교육, 교육재정	41
67	초등학교 입시경쟁	입시/평가	41
68	후기중등교육에 전문교과과목 포함	교육개혁, 교육과정/교수방법, 평생교육	42
69	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삶의 기술과 복지 프로그램'	교육복지	43
70	핀란드 학교에서 미래체육 수업이 사라질 위험에 처함	학교안전, 교원정책, 교육재정	43
71	고등학생들이 학교 따돌림과 폭력방지를 위해 스웨덴모델 도입 주장	교육복지, 학생생활지도	44
72	교원노조, 의무교육연령 상향에 제한을 둘 것을 제안	교육복지	44
73	교사들은 사설교습이 제공하는 교육 불평등에 조바심을 비침	기타	45
74	교육부 장관, 학생의 학습능력 하향 곡선에 우려	입시/평가, 학부모	46
75	위기 청소년을 위한 교사와 부모, 지자체의 역할	교육복지	47
76	학급당 평균 학생 수 감소	교육복지	48
77	교수방법 혁신: 흥미와 동기부여에 우선을 둬	교육과정/교수방법	48
78	일반고의 변화	교육개혁, 교육과정/교수방법	49

고등교육

1	미국 하버드대학교도 핀란드 교육 칭송해	교육복지, 교육과정/교수방법	50
2	EU 지역 외에서 오는 유학생에게 등록금 징수될지도	학생생활지도, 교육재정	50
3	대입수능시험을 개인 컴퓨터로 응시	입시/평가, 교육개혁, 교육정보화	51
4	여초 학과의 남학생들, 입시 가산점 계획 환영 못 받아	입시/평가, 교육개혁	51
5	핀란드 대학, 전공 과목을 영어로 개설하는 학과 늘어나	교육과정/교수방법, 교육개혁	52
6	대입수능시험, 대대적 개혁 이뤄질 예정	입시/평가, 교육정보화	52
7	언어 몰입 교사 양성 교육 종료 위기	교원정책, 교육과정/교수방법	53
8	핀란드 대학생 학자금 지원 풍성해	교육복지	53
9	핀란드 3개 대학이 공동으로 핀란드 교육 수출 전담하는 회사 설립	교육과정/교수방법	54
10	일과 교육, R&D 기능을 연계하는 고등교육의 전공별 특화교육과정 신설	교육과정/교수방법, 교육재정	54
11	고등교육의 평등 주장	입시/평가	55
12	기록적인 대학 지원자 수	입시/평가	56
13	외국 유학생의 고등교육 수업료 부과에 대한 이견	교육재정, 교육개혁	56
14	교원노조,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수출 제안	기타	57
15	내년부터 수능 최고 학점을 받기 쉬어짐	입시/평가	58
16	새로운 전문대 입법안 협의	직업교육	59
17	전문대학생의 1/5이 전공을 바꾸기를 원함	기타	59
18	교육수출위원회 보고: 교육수출은 수익사업이어야 함	기타	60
19	외국인 학생들의 고등교육 수업료 징수 관련 논란	교육재정	60
20	직업교육훈련 선 선발방식: 노동시장으로의 빠른 진입을 위한 입시정책	입시/평가, 직업교육	61

교육일반

1	교육문화부의 2014년 예산안	교육재정	63
2	공무원 한 달 월급이 평균 3,015유로	교원정책, 교육재정	64
3	소비자 협회: 기업이 협찬품으로 학교에 지나친 홍보	교육재정	64
4	학위나 직종이 급여에 영향을 미칠까?	교원정책	65
5	코스보(Kosovo)에 핀란드 직업교육 수출	직업교육	65
6	교육수출에 대한 개발을 앞당김	기타	66

유아교육

제목	운동 부족과 비만한 유년기를 보낸 학생은 학교 성적도 저조해
원문제목	Tutkimus: Lihavuus ja liikkumattomuus ennustavat heikkoa koulumenestystä
정보원	YLE 뉴스(2013.1.2.)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학부모
키워드	비만아동, 학교 성적

- ◆ 핀란드에서 최근 발표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운동 부족이나 비만한 유년기를 보낸 아동이 상급 학교에 진학했을 때 학업 성적이 저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아동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릴 때 신체 운동 신경에 이상이 발견되었던 아이들은 자라나며 운동 부족과 비만한 체형을 가지기 쉬움. 이러한 특징을 가진 아동들의 8년 후 학교 성적을 조사해 본 결과,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짐. 이 연구를 주도한 마르코 칸토만(Marko Kantomaan)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정기적 운동, 적정 체중 유지)을 익히도록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의 학교에서 학습 능력과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내림

제목	유치원 규모 대형화 추세
원문제목	Päiväkotien koko kasvaa pääkaupunkiseudulla
정보원	헬싱킨사노맛 일간지(2013.1.14)
주제분류	교육복지, 교육개혁, 학부모
키워드	유치원 대형화

- ◆ 핀란드 수도권에 있는 유치원 규모가 점점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임. 헬싱키시 정부는 새로운 유치원을 세울 때부터 최소 원생수를 84명으로 이전보다 상향 조정함. 수도권에 있는 에스포시와 반타시는 이보다 최소 원생수가 더 많음. 이와 같은 유치원의 거대화는 수도권 외에 핀란드 다른 지방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함. 헬싱키시는 가까운 미래에 205명의 원생이 다닐 수 있는 대형 유치원을 설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 앞으로 대형 유치원이 계속 세워질 예정인데 부지의 부족으로 오래된 공장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을 용도 변경을 통해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함
- ◆ 이렇게 원생이 많고 건물이 큰 유치원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 지자체 정부 관계자는 경제적,

실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유치원의 대형화는 부모들의 바람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함

제목	"많이 노는 아이가 건강하다"
원문제목	Terve lapsi oppii, kun hän leikkii
정보원	YLE 뉴스(2013.3.7.)
주제분류	기타
키워드	아동 성장, 성인과의 상호작용

- ◆ 핀란드 한 학교의 미술 교사이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페카 레흐티마끼(Pekka Lehtimäki)는 아동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환경보다 그들이 만나는 성인들과의 상호작용이라고 주장함. 특히, 아동은 부모 등의 성인과 나누는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다른 아동과의 대화,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성인에게 아동을 가르치려하기 전 거울을 보고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제목	아동의 협상 능력은 유치원부터 장점으로 작용
원문제목	Tutkimus: Neuvottelutaidoista etua jo päiväkodissa
정보원	YLE 뉴스(2013.4.4.)
주제분류	기타
키워드	협상능력, 유치원, 사회성

- ◆ 최근 연구 조사에 따르면 협상하는 능력은 이미 유치원 시절부터 중요한 능력인 것으로 밝혀짐.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아이들의 협상 능력은 필요하며 그러한 협상을 통해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허용되는 행동을 융통성 있게 바꿀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유치원 교사들과 능숙하게 대화하며 협상하는 능력을 갖춘 아이들은 나이는 어리지만 유치원 운영방식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함
- ◆ 이 연구에서는 유치원 시절 이미 아이들은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고 함. 또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데 현 핀란드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성인이 많이 부족한 상태임.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기 쉬우며 비사교적으로 자라나기 쉬움

제목	2016/2017년 유아와 기본교육에 대한 핵심교과과정 개편
원문제목	OPS 2016 - Esi- ja perusopetuksen opetussuunnitelman perusteiden uudistaminen
정보원	국가교육위원회(2013.6.)
주제분류	교육과정/교수방법
키워드	유아교육, 기본교육, 핵심교과과정

- ◆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목표의 법령(422/2012)에 근거하여 유아교육과 기본교육을 위한 새로운 국가 핵심교과과정을 준비함. 새로운 핵심교과과정은 2012년 정부에서 쟁점이 된 기본교육의 교수시간 배분뿐만 아니라 언어와 특수교육 시수까지 포함함. 유아교육, 기본교육의 핵심교과과정이 2014년 말까지 갱신되면 이에 발맞추어 지자체별로 새로운 지역 교과과정을 2016/2017년 학기 시작 전까지 준비하게 됨. 교과과정의 구조와 목표는 학습의 개념, 학습의 지원, 기본교육에서 가르치는 타 과목들에 중점을 둠. 실무진은 교육공무원, 연구자, 교사들로 이루어지나 그 과정에 학부모와 학생들도 참여하도록 권장함

제목	사립 신설 어린이집에 이용되는 육아 바우처 시스템
원문제목	Päivähoidon palveluseteli synnyttää uusia yksityisiä päiväkotia
정보원	YLE(2013.8.1.)
주제분류	교육복지, 교육재정
키워드	사립 어린이집, 아동복지연맹, 육아 바우처제도

- ◆ 핀란드에서는 어린이집의 육아 바우처제도가 점점 더 많이 이용되는 추세임. 지난해를 지자체의 서비스 바우처 사용에 관한 조사에서 25개의 지자체 가운데 23개의 지자체가 어린이집 육아 서비스 바우처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함.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 가운데 하나인 꾸오블라(Kouvola) 시는 사립기관으로부터 교육구매서비스를 구입하여 사립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지불되는 비용의 한 부분으로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음. 하아노야(Haanoja) 어린이집 원장은 “오토동안 지자체는 사립 어린이집과 긴밀한 협력을 해 왔으며 그 수요는 점점 넘쳐나고 있다”, “따라서 바우처제도가 어떤 중요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함
- ◆ 꾸오블라시는 현재 8개의 사립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은 비정부기구인 만네르헤임 아동복지연맹(MLL)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음. 아동복지연맹 사무국장 끼르시 버파센(Kirsi Virtasen)은 “유아교육의 사립화가 아동교육부분에서도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

나며 매 학기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는 것이 현실이다”고 하며 “바우처 제도는 가족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다”고 함

- ◆ 쿠오블라 시의 아동복지담당관 싸뚜 흐띠아이넨(Satu Hyytiäinen)은 기존의 사립 어린이집은 현재 서비스 보다 더한 것을 만들 가능성이 없다며 기업가적인 새로운 일들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반해 유아교육 전문가 협회의 야르꼬 라띠센(Jarkko Lahtisen)은 “여러 지자체에서 신설 사립 어린이집들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수업료의 인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함

제목	교육위원회, 국민들로부터 유치원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
원문제목	Opetushallitus toivoo palautetta esiopetuksen opetussuunnitelmaluonnoksista
정보원	국가교육위원회(2013.9.18.)
주제분류	교육과정/교수방법
키워드	기본교육, 교육과정 개편, 유아교육, 국민 의견 수렴

- ◆ 2013년 9월 27일까지 유치원생 교육과정 개편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과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웹사이트에 신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논평을 할 기회가 주어짐. 기본교육과정 안에서도 제도권 밖의 스타이너나 발도르프 교육과정의 가치와 교수법을 참고하여 공교육 개혁의 박차를 가하고 있음.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은 교육제공자들과 학부모 및 지자체의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 공시됨. 2014년 봄까지 공식성명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괄이 발표되고 2014년 가을에 기준 안들이 채택될 예정임. 지역의 교과과정은 그 이후 준비되며 2016년 가을학기 초에 모든 단위학교 수업에 적용될 예정임.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모든 유아교육제공자들에게 이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였고 교사와 학부모들 모두 이를 통해 교과과정 개편에 참여하게 됨. 또한, 2014년부터는 자녀들의 의견도 유아교육개발의 중요한 자료로 이용됨

제목	아동과 학생복지 및 안전을 위한 자료 배포
원문제목	Oppilas- ja opiskelijahuolto ja turvallisuutta koskevat aineistot
정보원	국가교육위원회(2013.10.10.)
주제분류	학교안전, 교육복지
키워드	위기대처, 교육안전지침, 학생복지

-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훈련제공자 및 학교교육기관에 안전과 위기대처에 대한 지침사항을 내림. 교육과정에서 교육제공자는 폭력과 따돌림, 학대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준수와 실행을 계획하고 감시하는 계획을 고안해야 함. 교육안전지침은 전체적인 안전 계획, 위기인식과 조정 및 방지들을 다룬 실제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음. 갑작스러운 위기나, 위협, 사고에서 아동과 학생복지지침은 위기방지와 위기계획 및 치명적인 위기사항에서 정신적이며 사회적인 지원 사항들을 다루고 있음. 치명적인 위기사항에서의 학교나 교육기관들을 지원하는 정신적, 사회적 지원 자료들은 가정과 학교의 협력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

제목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 증원
원문제목	Laatua päiväkoteihin varhaiskasvatuksen korkealla koulutuksella ja opettajia lisäämällä
정보원	교원노조(2013.10.31.)
주제분류	교원정책
키워드	교원 증원, 유아교육, 유아교육평가, 교사 자격

- ◆ 교원노조와 유치원협회는 교육평가원과 고등교육평가원이 유아교육평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반감. 현재 자원부족으로 인한 지자체의 교육예산삭감은 유아교육의 안전관리와 교사 및 교직원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함. 유아교육 평가는 유아교육에 관한 새 법안과 교직원 채용 및 훈련에 관한 계획에 이용됨. 유아교육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의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거나 전문대의 유아나 사회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해야 함. 향후 유아교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에서 학부를 마친 후 석사에 들어가야 하며 전문대를 마친 학생은 일반대학에서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추가과정을 이수해야 함

초·중등교육

제목	핀란드 경찰, 미국의 교내 총기난사 사건 이후 인터넷 감시 강화
원문제목	MTV3: Nettikirjoittelu syyniin kouluampumisen takia
정보원	사본사노맛 일간지(2012.12.15.)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학교안전
키워드	총기난사 모방사건 예방, 인터넷 감시

- ◆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핀란드 경찰은 핀란드에서도 이 사건을 모방한 사건이 벌어질 것에 대비하여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함. 이러한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여 이 사건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 어떤 대화나 댓글이 오고 가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함
- ◆ 경찰 관계자는 핀란드에서 학교 총기 사건을 벌이겠다고 위협하는 메시지가 통상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장난으로 위협하는 경우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시지가 발견되면 모든 케이스를 다 철저히 조사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음

제목	태블릿PC는 교육의 미래
원문제목	Tabletissa on perusopetuksen tulevaisuus
정보원	YLE 뉴스(2012.12.17.)
주제분류	교육과정/교수방법, 교육정보화
키워드	태블릿PC

- ◆ 태블릿PC가 핀란드 초등학교에서 교육 교재로 활용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학생들에게 태블릿PC 활용은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데 성공적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태블릿PC 활용으로 학생들은 인터넷에 있는 거대한 정보 보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아직까지 부정적인 측면은 보고되지 않고 있음
- ◆ 현재 핀란드 교육부는 핀란드 일부 초등학교에 2년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전교생에게 아이패드를 지급하여 태블릿PC가 교육에 끼치는 이로운 점을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한지 1주일 후부터 효과가 눈에 띄기 시작할 정도로 긍정적인 파급력이 대단한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학생들은 태블릿PC를 지급받고 숙제를 하며 태블릿PC의 전화 기능을 이용하고, 친구들과 전화를 하며 서로 협력해가며 숙제를 수행하

기 시작하고 있음

제목	학생들, 자원 봉사나 모금 활동에 대한 관심 높아져
원문제목	Koululaiset vaihtoivat maailmantuskan hyväntekeväisyyteen
정보원	YLE 뉴스(2012.12.21.)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학생봉사활동

- ◆ 최근 몇 년간 핀란드 많은 학교가 국제화된 글로벌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여 교육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국제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한다고 함. 예를 들어 세계 어린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Plan협회는 수도권에서만 40개 이상의 학교와 협력하고 있음
- ◆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규 과정 수업으로 여러 가지 세계 정세를 배우고 나면 자신이 세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질문하게 되며 아는 것에 결과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직접 모금 활동에 나서 NGO 등에 기부를 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함.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도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돕기 시작하고 있음

제목	국회의원, 중학교 졸업 성적표에 태도 성적 재도입 필요성 강조
원문제목	Pohjalaiskansanedustaja: Käytösnumero takaisin peruskoulun päättötodistukseen
정보원	YLE 뉴스(2012.12.21.)
주제분류	입시/평가,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태도 점수제 재도입

- ◆ 핀란드 한 국회의원은 핀란드 학생의 학교에서 생활 태도 향상을 위해 중학교 졸업 성적표에서 사라진 태도 점수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학교 졸업 성적표에서 태도 점수는 1994년 핀란드 교육과정을 개정하며 사라졌는데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사춘기 질풍노도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점수로 평가되지 않게 하려는 배려에서 나왔음. 하지만 태도 점수는 여전히 졸업 성적표를 제외하고 재학 중 성적표에는 여전히 태도 점수가 포함되어있음. 이 국회의원은 요즘 교사의 절대적 권위가 점차 떨어져 학생들을 다루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태도 점수제 제도입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기를 원하고 있음

제목	고등학교에도 전문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화 예정
원문제목	Turun Sanomat: Uusi laki toisi kouluhin satoja psykologeja ja kuraattoreita
정보원	투룬사노맛 일간지(2013.1.7.)
주제분류	교육개혁, 학생생활지도, 교육재정, 교육복지
키워드	전문 상담 교사, 사회복지사

- ◆ 핀란드에서 현재 준비 중인 새 교육법이 통과할 경우, 2014년부터 핀란드 인문계와 직업계 고등학교에 수백 명의 전문 상담 교사와 사회복지사가 배치될 것으로 보임
- ◆ 새 교육법에 따르면 고등학교에도 의무적으로 전문 상담 교사와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함. 현행법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전문 상담 교사와 사회복지사 배치가 의무 조항이었음. 고등학교에 전문 인원 충원을 위해서 예상되는 예산은 2천9백만 유로(한화 약 404억 원)임. 이 예산으로 440명의 전문 상담 교사와 사회 복지사를 채용할 예정임

제목	휴대폰과 스마트 스티커를 이용한 학습법 주목받아
원문제목	Oulussa opiskellaan suomea kännykän ja älytarrojen avulla
정보원	헬싱킨사노맛 일간지(2013.1.15.)
주제분류	교육과정/교수방법, 교육정보화
키워드	NFC, 스마트 스티커, 휴대폰 코드인식

- ◆ 오울루(oulu)시는 이민자 가정 자녀에게 휴대폰과 스마트 스티커로 핀란드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함. 현재 10명의 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실험 중인 이 기술 방식은 NFC(Near Field Communication)으로, 현재 도서관과 마트에서 사용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과 연관이 있음. 교사가 교실 벽에 마이크로 칩이 내장된 스마트 스티커를 붙여두면 학생은 휴대폰의 코드인식 장치를 이용하여 스티커에 내재된 정보를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휴대폰으로 빨간 스티커를 가리키면 코드를 인식하며 휴대전화에서 “빨간색”이라는 음성 서비스가 지원됨
- ◆ 이 코드 인식법은 가격이 5센트로(한화 약 75원) 저렴하여 실용화되기 쉬우며 교사는 언제든지 이 스마트 스티커 내재시킬 정보를 쉽게 바꿀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는 것이 장점임

제목	시골학교, E-교재에 대한 만족감 높아
원문제목	Pieni maalaiskoulu on innoissaan e-oppikirjoista
정보원	YLE 뉴스(2013.1.14.)
주제분류	교육과정/교수방법, 교육복지, 교육정보화
키워드	E-교재, 시골학교

- ◆ 핀란드 시골학교에서 E-교재를 활용한 수업이 학생과 교사 모두 상당히 큰 만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짐. E-교재를 사용하며 학생들은 새로운 정보를 찾는 방법도 배우고 있으며 학습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함. 현재 생물, 지학, 물리, 화학 과목을 E-교재로 배우고 있음
- ◆ 오히려 규모가 작은 시골학교에서 E-교재로 전환하는 것이 더 쉬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증받은 컴퓨터와 인터넷, 비디오 프로젝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임. 시골학교는 지금까지 도시학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기도 했는데 E-교재의 사용으로 차별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함. 이 밖에 장점으로는 수업 시간에 상호 작용이 늘어났으며 책가방도 종이 교재가 사라지며 가벼워진 것임

제목	학생의 무단결석은 학부모의 범법 행위로 처벌 가능
원문제목	Pitääkö koululintarin vanhempia sakottaa?
정보원	YLE 뉴스(2013.1.16.)
주제분류	학부모,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무단결석, 학부모 처벌

- ◆ 핀란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무단결석이 늘어나며 이를 방지하려는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음. 핀란드 교사는 교육법에 의해 학생 체벌을 하는 수단이 극히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무단결석을 반복하는 학생들에게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
- ◆ 핀란드에서는 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자녀의 의무 교육은 학생 부모들이 지켜야 하는 법으로 규정된 의무임. 핀란드 한 학교는 최근 학생의 무단결석에 대해 사건을 경찰에 넘겼는데 그 이유는 잦은 무단결석을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임. 이 부모는 결국 지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 이 학교가 속해있는 지자체는 무단결석이 곧 경찰에게 회부되는 것은 아니고 해결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행사하는 해결 방식이라고 강조했는데, 핀란드 교육부는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무단결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제목	평가는 시험성적, 수업태도, 생활태도 고려해 결정
원문제목	Parempi numero viitaten
정보원	YLE 뉴스(2013.1.30.)
주제분류	입시/평가,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학교성적 평가, 학교 생활 태도

- ◆ 핀란드 학교성적은 단순히 시험성적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고려해서 평가됨. 교육 부에서 규정한 학교성적을 평가하는 방식은 시험성과 더불어 수업 시간의 적극적 태도, 학교에서의 전반적 생활태도 등이 반영되는 것임. 비율로 따지면 시험 성적이 약 5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요소들이 50%를 차지함
- ◆ 학생의 성적에 시험 성적만이 아닌 여러 요소를 반영하려면 학생과 교사 사이가 그만큼 가까워야 함. 그래서 담임교사 제도가 있는 초등학교가 더 다양한 면을 고려하여 성적 산출이 가능하며 담임 교사제가 없는 중학교부터는 아무래도 시험성적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됨
- ◆ 이 밖에도 핀란드 학교에서는 최종 성적이 나오기 전에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적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교사와 자신이 평가하는 성적과 교사가 산출하는 성적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도 함

제목	학부모, 1일 학생으로 수업 참여
원문제목	Vanhemmat palasivat päiväksi pulpettiin
정보원	YLE 뉴스(2013.1.25.)
주제분류	학부모
키워드	학부모, 1일 학생

- ◆ 핀란드 한 중학교가 학부모에게 학생 대신 하루를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화제가 되고 있음. 학교에서는 심지어 학부모에게 숙제까지 내주었는데 그 숙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가정에서 잘 수행해주세요. 학교에 모든 책임을 넘기시면 안됩니다”였음
- ◆ 이 학교는 10년 전부터 매년 이렇게 학부모에게 하루 동안 학교에서 학생 대신 수업을 하며

학생을 이해하고 학교와 학부모의 돈독한 협력 관계를 다져나가고 있음.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학부모는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직접 경험을 하며 자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 이렇게 부모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동안 학생들은 집에서 청소 등 가사일을 한다고 함

제목	직업학교, 일반 시민에게 서비스와 제품 판매하며 학생 기술 제고
원문제목	Opiskelijavoimin syntyä vaikka nunnankaapu
정보원	헬싱킨사노맛 일간지(2013.2.13.)
주제분류	직업교육, 교육과정/교수방법
키워드	직업교육, 직업 고등학교, 서비스 제공, 제품 판매

- ◆ 핀란드 직업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저렴하게 학생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여 인기를 얻고 있음. 판매하는 영역은 직업 고등학교 전공에 따라 마사지, 미용, 수도관 설치, 자동차 수리, 원예, 비디오 촬영, 목공 등 다양함. 시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싼 가격에 원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환영받고 있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실력에 수준에 맞는 일을 수주 받고 있는데 학생들은 제공한 서비스나 만든 제품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 학교시험 성적처럼 점수를 받는다고 함

제목	"중학교도 학급제로 편성되어야"
원문제목	Tutkija: "Koulut ovat liian oppiainelähtöisiä"
정보원	YLE 뉴스(2013.2.13.)
주제분류	교육복지, 교육개혁, 교육재정,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학교 간 격차, 재정지원, 학급 운영체제, 학급제

- ◆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학교 간 격차를 없애기 위해 2천 3백만 유로(한화 약 333억 원)를 지원할 예정임. 이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에서는 숙제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교사의 근무 환경 강화, 이민자 자녀를 위한 특별수업 제공 등에 유용하게 쓸 계획임
- ◆ 핀란드의 한 교육 대학 교수는 이 예산을 이 밖에도 중학교 학급 운영체제를 바꾸는데 사용할 것을 제안했음. 그는 현재 핀란드 중학교는 한 학급에 소속되어 학급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과목에 따라 학생들이 학급을 이동하며 수업을 받는 형태인데 초등학교처럼 한 학급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

라고 함. 중학교 학교생활이 지나치게 수업에 집중되어있고 기타 학교 공동생활이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것이 학생에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그는 주장함

제목	학교에서 인터넷 예절과 사용법 교육 실시
원문제목	Nettietiketti vie turvalliseen surfailuun
정보원	YLE 뉴스(2013.2.13.)
주제분류	교육과정/교수방법, 교육정보화
키워드	인터넷 예절, 인터넷 사용법

- ◆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초등학교생들이 급증하면서 핀란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인터넷 예절이나 인터넷의 유용한 사용법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음. 인터넷에서 개인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 쉽게 메시지가 오가는 인터넷 세상에서 언어를 예의 있게 사용하는 법 등을 가르침. 인터넷에서도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할 때처럼 똑같이 할 말과 안할 말을 가려야한다고 가르치고 있음
- ◆ 가령 학생들에게 종이에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게 한 후 그림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학생들이 직접 다 경험해보도록 하기도 함. 초등학교생들도 스마트폰을 소지하는 학생이 많아지며 인터넷은 이제 그들의 일상생활이 되었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인터넷 사용법과 예절을 가르쳐야 할 때가 온 것으로 교육 전문가들은 반기는 분위기임

제목	핀란드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에 사용하는 경우 적어
원문제목	Digilaitteet jäävät kouluissa vähälle käytölle
정보원	헬싱킨사노맛 일간지(2013.2.13.)
주제분류	교육정보화, 교육과정/교수방법
키워드	컴퓨터, IT, 교구, E-교재

- ◆ 곧 발간될 EU 31개국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 학교의 컴퓨터 시설은 유럽에서 수위에 있지만 실제로 학교 수업에 컴퓨터가 이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는 컴퓨터를 수업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로 나타남
- ◆ 핀란드에서도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몇 주간 지급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이용하도록 하는 학교가 많은데 주로 태블릿PC를 이용하는 과목은 영어, 수학,

국어 등임. 초중학교에서 교사가 컴퓨터 등 IT관련 교구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학생조차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수업에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임. 부교재의 경우는 E-교재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교과서는 아직까지 E-교재화되지 않은 것도 교사의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함

제목	핀란드 학교 건축, 라이프사이클 모델 채택으로 주목 받아
원문제목	Huhtasuon elinkaarimalli kiinnostaa maailmalla
정보원	YLE 뉴스(2013.2.20.)
주제분류	교육시설
키워드	학교 건축, 라이프 사이클 모델

- ◆ 핀란드 유바스쿨라시에 현재 짓고 있는 종합학교(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적용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임. 이 건축 프로젝트는 유럽 각국에서 14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임. 이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는 설계, 건축한 회사가 건물을 20년 동안 관리 소유하는 컨셉임. 건축 단계에서 투자금액은 3천 5백만 유로(한화 약 493억 원)이며, 건축 후 20년 동안 투자금액은 6천만 유로(한화 약 847억 원)일 것으로 산정됨. 금액면에서 이 프로젝트는 유바스쿨라시가 지금까지 참여한 건축 프로젝트 중 최고가로 알려짐

제목	학교 예산을 절감할 때는 주의가 필요
원문제목	Sivua ei löydy
정보원	일따사보(2013.2.20.)
주제분류	교육재정, 교원정책
키워드	강제 휴직, 예산 삭감

- ◆ 핀란드 지자체는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예산 삭감을 단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의 강제 휴직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교사들의 강제 휴직도 단행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돌고 있음. 하지만 교사들의 휴직은 다른 공무원의 휴직과는 다른 관점에서 다뤄져야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임. 이는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옴
- ◆ 이미 핀란드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난 몇 년 간 여러 번 재정 부족을 이유로 교사 강제 휴직

이 이루어졌었음. 강제 휴직은 교사들이 돌아가며 쉬는 것으로 학교 자체를 휴교하지는 않지만 한 교사가 여러 반을 맡는 형태로 진행돼,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짐. 이미 교원 노동조합(OAJ)에서도 2번이나 교사의 강제 휴직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냈었음

제목	교재의 재활용과 E-교재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의견 늘어나
원문제목	Oppimateriaali nettiin - niukkuus ruokkii opettajien luovuutta
정보원	YLE 뉴스(2013.2.13.)
주제분류	교육과정/교수방법, 교육재정, 교육복지
키워드	교재비, 교재 재활용, E-교재, 평준화

- ◆ 핀란드 인터넷에서는 초등학교 교재에 대한 재활용과 E-교재에 대한 언급이 활발하게 오가고 있음. 그 이유는 지자체마다 책정된 초등학교 교재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임. 교재비 부족으로 공예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재료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함. 예를 들어 오울루시는 예산이 197유로(한화 약 28만 원)이며 요엔수시는 70유로(한화 약 10만 원) 밖에 안됨. 이러한 교재비 차이는 교육의 질의 차이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교재를 재활용하거나 E-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교육의 질의 평준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되고 있음. 인터넷 포럼에서 많은 부모들은 교재가 새것이나 재활용한 것이냐는 교육의 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모자란 듯한 환경에서 교사의 자질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강조함

제목	학교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 늘어나
원문제목	Kännykkä mukaan kouluopetukseen
정보원	YLE 뉴스(2013.2.22.)
주제분류	교육정보화, 교육과정/교수방법
키워드	비만도, 인터넷 중독

- ◆ 보통 휴대전화는 학교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되며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음. 예를 들어, 미술 시간에 스마트 폰의 비디오 촬영 기능과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는 학교가 늘고 있음. 이전에는 학교에서 비디오나 카메라 장비를 갖추는 것이 한정된 예산 때문에 힘들었지만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며 쉽게 비디오와 카메라를 이용한 수업이 가능해졌음

- ◆ 아이들은 교사가 정해진 방법만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으로 알려짐. 휴대폰의 여러 기능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또 그룹별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음

제목	중학생, 직업고등학교 진학을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선호
원문제목	Opinto-ohjaajan neuvo: Hae sinne, minne oikeasti haluat
정보원	YLE 뉴스(2013.2.25.)
주제분류	입시/평가, 직업교육
키워드	진학, 직업고등학교

- ◆ 핀란드 중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입시 패턴을 보면 직업고등학교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임. 인문계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인기를 잃게 되는 이유로는 후에 직업을 얻는 확률이나 월급 액수에서 큰 장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함. 이 밖에도 직업고등학교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직업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도 가능하기 때문임
- ◆ 중학교 진로 지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진학할 것을 조언하고 있음. 중학교 진로 지도 교사에 따르면 핀란드 중학생들의 꿈은 상당히 현실적이며 그래서 직업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함. 이들에게 꿈의 직업은 안정적 직업과 임금이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함

제목	청소년들, 인터넷 왕따 문제로 고민 늘어나
원문제목	Nettikiusaaminen nousee huolena yli muiden
정보원	YLE 뉴스(2013.3.13.)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청소년, 인터넷 왕따, 인터넷 안전

- ◆ 최근 핀란드 탐페레시가 주최한 청소년 안전 관련 포럼에서 핀란드 청소년들이 인터넷 안전 불안증과 인터넷 왕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함. 인터넷 패스워드의 해킹문제와 인터넷 왕따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등이 청소년이 참석한 포럼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그 부작용에 대처하는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특히,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성인이 가까이에서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함

제목	학교 전문상담교사의 부족, 사설 기관 하청을 통해 해결 노력
원문제목	Pulaa koulupsykologeista yritetään paikata ostopalveluilla
정보원	YLE 뉴스(2013.3.7.)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교육복지
키워드	전문상담교사, 사설 상담기관

- ◆ 핀란드 학교에는 현재 약 300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재직하고 있는데 100명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임. 2006년 개정된 법에 의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도 전문상담교사가 상주해야 하기 때문임. 전문상담교사의 부족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나 시골에서 더 심각한데 심지어 1명의 교사가 1,000명의 학생을 담당하기도 함. 이와 같은 부족 현상은 사설 상담기관에 하청을 주어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제목	아동의 스트레스와 피로감 늘어나
원문제목	Lapset uupuvat käsiin - totta vai tarua?
정보원	YLE 뉴스(2013.3.13.)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학부모
키워드	학생 스트레스, 부모 영향

- ◆ 핀란드에서 학생들을 많이 대하는 교사, 양호교사, 사회복지 교사의 의견에 따르면 예전에 비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함. 이르게는 10세 아동부터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음. 전문가들은 예전보다 아동과 청소년이 받는 압박이 더 심해졌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어떻게 이런 압력을 줄어나갈지 해결책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전이되기 쉽다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부모가 매일 퇴근 후 집에 와서 아동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는가가 아이들의 건전한 정신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함

제목	'학교 할아버지' 학생들에게 큰 인기 얻어
원문제목	Kouluvaari on kiva ja osaa matikkaakin
정보원	YLE 뉴스(2013.3.19.)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교육과정/교수방법
키워드	학교 할아버지, 코올루바리, 보조 교사

- ◆ 핀란드에서는 은퇴한 노년층이 학교 보조 교사로 일하는 코올루바리(학교 할아버지) 제도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음. ‘학교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번 학교에 출석하여, 수학 등 수업 시간에 보조 교사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시간에도 학생들과 함께 하며, 체육시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학생들에게 책도 읽어주며 학생들의 안전을 도와주는 안전 요원의 역할도 하며 학생들에게는 배우고 싶은 롤모델이 되기도 하는 등 여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많은 학교에서 ‘학교 할아버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함

제목	고등학생 연합회, 개정 교육법은 학생의 권리 침해
원문제목	Lukiolaisten liitto pitää kuripakettia liian kovana
정보원	헬싱킨사노맛 일간지(2013.3.18.)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고등학생 연합회, 교육법, 소지품 조사, 학생 기본권

- ◆ 핀란드 인문계고등학생연합회는 최근 개정된 교육법이 지나치게 학생에게 엄격해졌다고 불만을 토로함. 곧 개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사는 학생이 위험한 물건이나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학생 소지품을 조사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강제적으로 압수할 수도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음. 이에 연합회는 단순히 위험한 물건이 있다는 의심만으로는 학생 개인의 소지품을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이는 학생의 기본권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비판함. 또한, 교사에게 학생을 통제할 권리를 더 부여하기보다는 위험한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을 학교에 부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함

제목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의 기본 암산 능력 떨어져
원문제목	Peruskoulun päättävillä heikko laskupää - perustaidot hukassa
정보원	YLE 뉴스(2013.3.19.)
주제분류	입시/평가
키워드	암산, 수학 능력

- ◆ 최근 핀란드 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교육을 마친 학생들 중 다수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암산 능력과 비율(%)을 계산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학생 간 실력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남. 학교 간 격차도 예전에 비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학교 간 격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임

- ◆ 여학생과 남학생의 수학 평균 점수는 비슷한 편이지만 수학 성적이 높은 학생군만 비교하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력 있는 교사와 상대적으로 실력 없는 교사 밑에서 배운 학생들의 성적도 교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핀란드 학생들은 수학이 중요한 과목이라고는 느끼지만 선호하는 과목은 아닌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수학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수학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함. 이러한 수학 실력 저하는 상급 학교에서도 누적 결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핀란드 학생의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절실히 모색되어야 한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주장하고 있음

제목	아동/청소년의 20%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원문제목	Joka viides lapsi jää yksin
정보원	헬싱킨사노맛 일간지(2013.3.28.)
주제분류	교육복지
키워드	외로움, 소외감, 학습 장애

- ◆ 최근 연구 발표에 따르면 핀란드 아동/청소년의 1/5이 외롭다고 느끼고 있으며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함. 이 중 반 이상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친구 없이 지내며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임. 학생들은 외로움에 대해서 “슬프고, 지루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함
- ◆ 친구가 전혀 없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소외감은 초등학교 저학년, 심지어는 유치원부터 시작된다고 함. 또한, 외로움과 소외가 학습 장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아이들이 느끼는 이러한 사회적 고통은 신체적 고통만큼 아픈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회적 고통으로 야기되는 결과는 더 충격적임. 왜냐하면, 이는 아동의 인생에 대한 관점, 인지적 능력과 신체적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임

제목	헬싱키 시 소재 중학생들에게 학교 급식 인기 없어
원문제목	Oikaisu: Yläkoululaisista 10-25 prosenttia jättää syömättä Helsingissä
정보원	헬싱킨 사노맛 일간지(2013.3.29.)
주제분류	교육복지
키워드	학교 급식, 급식 참여율, 영양 부서 개설

- ◆ 헬싱키시 중학생 중 10~25%는 학교 급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육류가 제공되지 않은 ‘채식의 날’에는 학생들이 음식을 다른 날에 비해 적은 양을 먹어 20~25%나 급식을 먹지 않는다고 함. 핀란드 초등학교 학생들은 급식을 교사와 함께 먹기 때문에 약 95% 학생들이 급식에 참여하여 참여율이 높고 고등학교에서도 75~80% 정도가 급식에 참여해 참여율이 낮지 않은 편임. 하지만 중학생들의 급식 참여율은 이중 가장 낮음. 이에 대해 헬싱키는 2014년부터 학교에 영양 부서를 개설,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음식과 급식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제목	학생 처벌 강화하는 법안 준비 중
원문제목	Virkkunen - Häiriköivät oppilaat vähäksi aikaa pois koulusta
정보원	YLE 뉴스(2013.4.9.)
주제분류	학교안전,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문제 학생, 처벌, 정학

- ◆ 핀란드 교육부는 학교 면학 분위기 조성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함. 현재 준비 중인 법안은 국회에서 곧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개정된 법안은 주요 폭력과 위협을 하며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학교에 며칠간 못 오도록 정학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학교장은 스스로 판단에 의해 문제 학생을 최대 3일간 정학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물론 상황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야 함. 이러한 정학 조치는 학교 면학 분위기가 정비되고 안정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행법으로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당일에 한해서 강제 조퇴를 시킬 수 있는 정도임

제목	학생을 발로 차서 해고된 교사의 처벌에 관한 논의 활발해져
원문제목	Opettajain potkut testaavat kurinpidon rajat
정보원	헬싱키 사노맛 일간지(2013.4.10.)
주제분류	교원정책, 학교안전, 교육개혁
키워드	체벌, 교사해고, 경찰 조사

- ◆ 최근 헬싱키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해고되면서 교사의 학생 체벌 방식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오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으로 가할 수 있는 최대 체벌은 손을 잡고 지정된 장소로 끌어내는 정도임

- ◆ 핀란드 교총은 학생을 발로 차서 해고된 교사 사건에 대해 “핀란드에서 이러한 일이 거의 일어난 적이 없는 희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경찰이 조사한 것에 대해 옳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비난함. 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학교 내에서 해결될 수 있었다며 아쉬워함. 현재 이 사건은 경찰로 넘어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경찰은 교사와 학생, 학생의 부모와 그 밖의 관련 인물들을 모두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함. 교총을 비롯하며 핀란드의 교사 협회들은 현재 해고된 교사 입장을 지지하며 아이를 신체적으로 공격한 것이라기보다는 훈육에 가까웠다고 변호하고 있으며, 경찰의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교사를 해고한 정부 당국을 비난하고 있음

제목	'현상 수업'이라는 새로운 교육방법이 주목 받아
원문제목	Koululaisten opetuksessa kokeillaan nyt ilmiö-oppimista Etu-Töölö hakee oppia ilmiöiden avulla
정보원	YLE 뉴스(2013.4.13.) 헬싱킨사노맛 일간지(2013.4.29.)
주제분류	교육과정/교수방법
키워드	현상 학습, 현상 수업, 통합 교육

- ◆ 핀란드에서는 최근 ‘현상(phenomenon) 수업’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법이 주목받고 있음. 현상 수업은 전통적으로 규정되어온 과목의 범위를 깨고 학생들이 교실이라는 틀을 벗어나 직접 지식을 찾아 나서는 수업의 형태임.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창작 연극을 공연하게 하며 단순한 전통적 연극 활동만이 아닌 대본을 쓰는 과정부터 인물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 등을 연구하도록 하여 과목을 아우르는 통합 교육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 학생들은 이러한 형태의 수업에 더 많은 흥미를 갖게 되며 더 쉽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고 함. 현상 학습이 기존의 학습과 다른 점은 학생 스스로 지식을 적극 찾아내 통합적인 이해를 한다는 점임. 헬싱키 시에 있는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한 학기 동안 ‘현상’을 위주로 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음

제목	학생들의 신체 활동이 늘면 면학 분위기 좋아져
원문제목	Kysely: Liikunta välitunneilla parantaa työrauhaa kouluissa Koulunpenkiltä pitäisi nousta - myös oppitunnilla
정보원	헬싱키 사노맛 일간지(2013.4.14.) YLE 뉴스(2013.4.17.)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교육과정/교수방법
키워드	리꾸바 코올루, 신체 활동, 면학 분위기

- ◆ 핀란드 정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적 활동을 늘리기 위해 ‘리꾸바 코올루(움직이는 학교)’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 학교에서 가장 쉽고 경제적으로 학생들의 신체적 활동을 늘리는 방법은 쉬는 시간에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임. 근래 들어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 외 보통 일반적 수업 시간에도 신체 활동을 늘리는 수업이 점차 더 장려되고 있음
- ◆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리꾸바 코올루(움직이는 학교)’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학교에서 몸을 많이 움직일 기회를 갖게 되면서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늘어나며 면학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다고 함. 예를 들어 생물 시간에 새를 관찰하고 모이를 주기 위해 새를 찾아 자연 학습을 하는 것이 있으며, 교실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동선을 늘리고 움직임을 최대화 하는 방법이 권장되고 있음

제목	"학교는 학부모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
원문제목	Psykologiliitto: Koulun ei pidä heilua vanhempien vaatimusten mukaan
정보원	헬싱키 사노맛(2013.4.18.)
주제분류	학부모
키워드	학부모, 학교 운영

- ◆ 핀란드에서는 최근 몇 년간 학교장과 학부모와 갈등을 겪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임. 핀란드 상담협회 투오모 띠키넨(Tuomo Tikkanen) 협회장은 학교는 학부모의 개별적 요구나 불만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그는 “학부모는 보통 학교 교직원들과 교육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학교는 이런 불만을 해결하며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 띠까넨 회장은 이전에 헬싱키교육위원회 수석상담사로 활동하였음. 그가 이러한 소신 있는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핀란드 쿠오피오시에서 아이들의 교육 방식 차이로 두 가족과 교장이 수년째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임. 이 가족은 교장을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차례 요청하기도 함

제목	"교사의 권위 추락, 심각한 결과 초래"
원문제목	Tutkija: Kouluissa on auktoriteettivaje
정보원	YLE 뉴스(2013.4.22.)
주제분류	교원정책, 학생생활지도, 학교안정
키워드	교사의 권위, 학생 훈육, 체벌의 필요성

- ◆ 핀란드의 타피오 푸올리마까(Tapio Puolimatka) 교육학 교수는 핀란드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며 학생들을 훈육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함. 그에 의하면 핀란드 학교에서 요즘 면학 분위기가 많이 흐려지고 왕따 현상이 일반적인 이유는 바로 교사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 또한, 핀란드인들은 그 아이의 나이보다 더 성숙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나친 낙관주의로 아이들의 능력을 지나치게 믿으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경고함. 그는 다년간 교육에서 권위와 관련된 연구에 전념해왔는데 교사가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학생이 거세지게 된다고 설명함. 아울러 성인의 세계도 체벌 없이는 잘 돌아가지 않는데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도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강조함

제목	수도권, 방과후학교 지원자보다 자리 모자라
원문제목	Pääkaupunkiseudun iltapäiväkerhoihin ei mahdu
정보원	헬싱킨사노맛 일간지(2013.4.29.)
주제분류	교육시설, 교육복지
키워드	방과후학교, 초등학교 저학년

- ◆ 핀란드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이 방과후학교를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원하는 만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올해는 헬싱키시에서만 530명이 방과후학교를 배정받지 못했음. 방과후학교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로 방과 후 몇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임

- ◆ 이는 작년에 헬싱키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를 제공하겠다”라는 원칙과 상충됨. 수도권 내 학교에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핀란드 중앙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에도 방과후학교를 늘리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현재 핀란드 교육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제목	학교와 가정 연결해주는 인트라넷 내용 누수
원문제목	Nettikeskustelut veivät oppilailta oikeuksia omiin tietoihinsa
정보원	헬싱킨사노맛 일간지(2013.5.5.)
주제분류	교육정보화, 학생생활지도, 학부모
키워드	학교 인트라넷, 가정통신, 인터넷 정보 누수

- ◆ 앞으로 핀란드 일부 지자체는 핀란드에서 가정과 학교를 연결해주는 인트라넷Wilma 내용 중 일부를 학교와 부모에게는 공개하지만 중학생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그 이유는 일부 학생이 Wilma의 내용을 인터넷에 퍼뜨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임. 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교사가 부모에게 보내는 첨언으로 이 첨언에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시정해야 할 학습태도나 생활태도가 명시되는 경우가 많음. 헬싱키 시는 얼마 전 시전체 중학생이 이 첨언 부분을 못 읽도록 조치했었으나 며칠 후 이 조치를 철회했었음. 핀란드 학생 연합회는 이런 일부 지자체의 조치에 대해 학생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제목	자물쇠와 금속 탐지기는 학교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아냐
원문제목	Lukittua koulua ei pidetä turvallisena
정보원	헬싱킨 사노맛 일간지(2013.5.15.)
주제분류	학교 안전
키워드	학교 안전, 금속탐지기, 상호 신뢰

- ◆ 한 연구 조사에서 학교 안전을 위해 금속탐지기와 자물쇠를 활용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발표함. 자물쇠와 금속탐지기로 무장된 학교를 학생들은 감옥처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임. 오히려 학교 안전은 상호 간 신뢰 형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는 학생들을 의심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성을 믿을 때 학교 안전을 더 이룰 수 있다는 것임. 이 연구 조사는 2개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제목	학교폭력 급격히 증가
원문제목	Teachers' Union: Violence in schools has increased
정보원	YLE 뉴스(2013.5.15.)
주제분류	학교안전,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학교폭력, 교육 환경, 교사 권위

- ◆ 핀란드 교총(OAJ)은 학교 내에서 위협이나 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함.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는 핀란드의 18개 대도시에서 학교 위협이나 폭력 사건으로 5,300건이 신고됨. 이 수치는 2010년 2,800건, 2011년 4,600건과 비교하여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교총의 울리 루카이넨(Olli Luukkainen)의 장은 이에 대해 통계에 잡히는 건수는 그렇지 않은 건수에 비하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큰 우려를 표명함
- ◆ 그는 현재 핀란드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위협과 모욕을 받아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며, 국회에서 교사의 권위와 학생의 책임,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의 협조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함

제목	스마트폰, 학교 금지품에서 이제는 교육 교재로 활용돼
원문제목	Älypuhelin muuttuu kielletystä lelusta oppimisvälineeksi kouluissa
정보원	YLE 뉴스(2013.5.16.)
주제분류	교육정보화, 교육과정/교수방법, 입시/평가
키워드	모바일 기기, 학교 금지품, 인터넷 활용 평가

- ◆ 많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사용을 금지했던 휴대전화를 오히려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현재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모바일 기기와 함께 하기에 학교도 시대와 함께 발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것임. 이에 핀란드 투르쿠(Turku)시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는 2013년 가을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학교에 가져오는 것을 허용할 예정임
- ◆ 핀란드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평가에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함. 이와 같은 변화는 평가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전에는 기억력이나 능력을 통해 측정했지만, 현실적으로 직업의 세계에서는 인터넷과 계산기 등 여러 도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 있음
- ◆ 2016년 치러질 핀란드 대입수능시험에도 인터넷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일부 출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 이후 2019년에는 완전히 컴퓨터를 활용해서 치러질 예정임

제목	원거리 교육으로 아픈 학생도 정상적 학교생활 가능
원문제목	Koululaisten opetuksessa kokeillaan nyt ilmiö-oppimista Etu-Töölö hakee oppia ilmiöiden avulla
정보원	YLE 뉴스(2013.5.22.)
주제분류	교육정보화, 교육과정/교수방법
키워드	원격 수업, eSKO-project, 학생 환자

- ◆ 아픈 학생들도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수업을 통해 학급 급우와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 원격 수업은 단지 수업 시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쉬는 시간까지 연장되어 친구들과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마치 진짜 학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음
- ◆ 핀란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eSKO-project는 핀란드 전국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아픈 학생들에게 원격 수업을 통해 학교 수업을 제공하고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것임

제목	"유급은 학생을 위한 것",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
원문제목	Luokalle jääminen voi olla lapsen etu - pyynnön toivotaan tulevan vanhemmilta
정보원	YLE 뉴스(2013.5.27.)
주제분류	입시/평가, 학부모
키워드	유급

- ◆ 핀란드 초·중학교에서는 매년 약 2,000명의 학생들(전체 학생의 0.4% 정도)이 다음 학년에 진학하지 못하고 유급됨. 보통 유급의 사유는 과목 중 낙제를 받았기 때문인데 이 밖에 읽기나 셈하는 능력이 다른 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에도 유급이 되기도 함
- ◆ 핀란드에서 유급은 교사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급 몇 달 전부터 부모와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며 이 문제에 대해 부모와 교사가 상이한 의견을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또한, 부모가 유급을 제안하는 경우도 많은 데 그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공부를 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임

제목	핀란드 정부, 교사에게 학생 소지품 조사할 권한 부여 예정
원문제목	Hallitus antaisi opettajille oikeuden tarkastaa oppilaan tavarat
정보원	헬싱킨사노맛 일간지(2013.6.6.)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교원정책
키워드	교원 권한 강화, 소지품 조사

- ◆ 교사와 교장에게 학생의 개인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예정임. 앞으로는 학생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면 조사와 압수를 할 수 있게 함. 최근 핀란드 교육부 크리스타 키우루(Krista Kiuru) 장관이 법령을 발표함에 따라 교사와 교장의 권한 강화는 학교에서 면학 분위기 강화와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 다만, 학생 개인 소지품을 조사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학생이 위험한 물건이나 학교에 가져와서는 안 되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만 조사가 가능함. 학생 소지품을 조사할 때는 반드시 2명의 성인이 그 장소에 있어야 하며, 학생은 그 중 1명을 선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음. 핀란드 교총 측도 이러한 교사의 권한 강화에 큰 지지를 보내고 있음

제목	2000년대 핀란드 최고의 고등학교 선정
원문제목	Ressun lukio koko 2000-luvun paras - huippulukiot tekevät tasaista tulosta, pienissä lukioissa taso vaihtelee
정보원	YLE뉴스(2013.5.28.)
주제분류	학교평가, 입시/평가
키워드	대입 학교 성적, 학교 예산 배정

- ◆ 핀란드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입수능시험 성적 평균이 가장 높았던 고등학교는 헬싱키 시에 있는 레쭈 고등학교(Ressun lukio)인 것으로 나타남. 2위는 헬싱긴 수오말라인엔 위흐테이스쿨루(Helsingin Suomalainen Yhteiskoulu)임. 보통은 큰 규모의 고등학교가 소규모의 고등학교보다 매년 성적이 높낮이가 없이 꾸준함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는 소규모의 고등학교일수록 매년 개인 성적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임
- ◆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앞으로 고등학교 예산 배정 시 고등학교 수능 평균 성적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한 학계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음. 성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학교에서 평균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게 하며 학교가 자칫 공부만을

가르치는 곳으로 비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함. 학교는 공부 외에 학생들의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함

제목	고등학교에도 초·중학교와 동일한 심리 상담과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예정
원문제목	Toisen asteen opiskelijoille paremmat psykologi- ja kuraattoripalvelut
정보원	헬싱킨사노맛 일간지(2013.6.6.)
주제분류	교육복지,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고등학생, 심리 상담, 사회복지 서비스

- ◆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고등학생들도 초·중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심리 상담교사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이번 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 학생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것임
- ◆ 특히,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신속성을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급박한 사안에는 심리치료사나 사회복지사와의 면담을 당일 혹은 늦어도 익일에는 주선할 수 있도록 함

제목	몇 년 후 수학 교사 부족 현상도 나타날 듯
원문제목	Matemaattisten aineiden opettajista pulaa lähivuosina
정보원	YLE 뉴스(2013.6.10.)
주제분류	교원정책
키워드	교사 부족 현상, 과학 교사, 수학 교사

- ◆ 핀란드에서는 특히 도시와 떨어져 북쪽으로 갈수록 화학, 물리 교사가 부족하며, 특히 능력 있는 교사는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아직 큰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수학 교사도 부족할 전망이다. 수학은 인내심을 갖고 끈기로 공부해야 하는 과목인데 요즘 세대처럼 쉽게 싫증을 내는 세대는 수학 과목을 전공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학 교사 부족 현상으로까지 이루어지는지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지방대학을 나온 교사들도 직장은 수도권 지역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 지방에서 능력 있는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무료 숙소를 제공하는 등 교사 확보에 큰 노력을 기울이는 중임

제목	노동부 장관, 의무교육 기한의 연장 주장
원문제목	Kauppa-lehti: Ihminen pidentäisi oppivelvollisuutta
정보원	Helsingin Sanomat(2013.6.12)
주제분류	교육개혁
키워드	의무교육 기한, 직업교육과 훈련

- ◆ 라우리 이할라이넨(Lauri Ihalainen) 노동부 장관(사민당)은 청소년들이 지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교육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학교가 도식적으로 반드시 10학년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 이후의 과정을 밟지 않는 학생들이 고용이나 후속교육의 추가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음. 노동부 장관은 9학년을 마친 후 자유학기제처럼 1년 동안의 의무적인 프로그램을 밟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직업교육과 훈련에서도 2년 과정의 학교교육과 1년의 인턴십 모델(2+1)을 제안함. 의무교육의 연장은 전 교육부장관 유카 구스타브슨(Jukka Gustafsson)과 전문직 및 노동조합관리연맹인 아까바(Akava), 교조(OAJ), 핀란드 노동조합총연맹(SAK), 핀란드 전문직연합회(STTK)에 의해 실행됨

제목	핀란드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원문제목	Psykologiilitto: Koulun ei pidä heilua vanhempien vaatimusten mukaan
정보원	헬싱킨사노맛 일간지(2013.6.15.)
주제분류	교육과정/교수방법, 교육정보화
키워드	IT 교육, 엔지니어적 사고방식, 기계 중시

- ◆ 핀란드 청소년 전문가인 토미 킬라코스켄씨는 핀란드 학교에서 IT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엔지니어적 사고체계 방식 때문이라고 비판함. 그는 1990년대부터 핀란드 학교에 컴퓨터는 많이 도입되었지만 교사조차 제대로 다룰 줄 몰라서 컴퓨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며 이는 핀란드에서는 기계 자체를 더 중요시해 기계만 사면 마치 모든 것이 그 스스로 해결될 것이라는 사고방식에 기인했다고 함. 또한, 학교에서 아직 협동학습보다는 혼자서 공부하는 문화가 더 강해서 컴퓨터의 위키 페이지 혹은 블로그를 통해 공동학습을 할 기회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학생과 교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격의 없이 만나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함

제목	"학교를 감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원문제목	Rehtori: Kouluista tehdään vankiloita
정보원	헬싱킨사노맛 일간지(2013.6.20.)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학교 면학 분위기, 학생 체벌

- ◆ 핀란드에서 최근 학교의 면학 분위기 강화를 위해 학생 체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핀란드 에스포 시에 있는 한 학교에 재직 중인 유카 펜티넨(Jukka Penttinen) 교장은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음. 그는 학생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문제가 해결되며 체벌로는 면학 분위기를 좋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또한, 최근 핀란드 국회에 상정된 학생 체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 “학교에 감옥에서나 사용할 법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다”라고 한탄함. 그리고 학생들에게 정확한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칙은 규칙을 위한 규칙이 아니라 학교에서 꼭 필요한 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제는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체벌로만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능력 없는’ 교사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제목	학부모가 학교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 권고
원문제목	Vanhempainliitto: Kuntalaisia kuultava Hollolan koulu-uudistuksessa
정보원	YLE 뉴스(2013.6.24.)
주제분류	학부모
키워드	학부모 참여, 학교 의사결정

- ◆ 핀란드 학부모협회(Suomen Vanhempainliitto)에 따르면 학생과 관련된 지자체의 의사결정이 학부모들의 참여 없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함. 학부모 협회장인 투오마스 꾸르틸라(Tuomas Kurttila)는 라피 지역 홀로란 시의 학부모들도 적절한 정보공시나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의회에 의해 결정된 바가 있다고 함. 협회장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도 긴축재정을 위한 폐교나 학교시설 복합화와 같은 문제의 의사결정 진행과정을 알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홀로란 시에 서한을 보내 학부모가 학교 의사결정의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시정을 권고함
- ◆ 교육문화부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국가 정책 프로그램(2012~2015년)에서도 ‘참여’와 ‘시민성 함양’이 특히 강조되어 있음. 이 안에는 공공의사결정에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도

학교 의사결정에 추가되어야 하며 가족과 아동문제에 관해서도 이들의 견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음

제목	진로탐색을 위해 의무교육을 더 연장해야 하나?
원문제목	Puheenaihe: Lisää pituutta opin polkuun?
정보원	Aamulehti(2013.3.16.)
주제분류	교육개혁, 직업교육, 교육과정/교수방법
키워드	의무교육 기간, 진로탐색, 청년 보장제

- ◆ 핀란드 탐페레의 고용관리 세미나에서 90개 기업과 정부기관, 교육과 훈련 관련자들이 모여 청년 보장제(Youth Guarantee)에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논의함. 지방의회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에사할메(Esa Halme)는 청년들이 너무 이른 시기에 미래의 진로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의무교육(현재 시스템에서 의무교육은 교육요목을 마치거나 의무교육을 마치게 되는 10학년까지 해당)이 완료되는 연령을 18세까지 상향할 것을 주장함. 이에 핀란드 교원노조(Opetusalan Ammattijärjestö, OAJ)의 장인 올리 루카이넨(Olli Luukkainen)은 청년의 소외와 관심에 중점을 두며, 의무교육의 연장을 정당화함. 국민연합당(Kokoomus)원이며 교육문화 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라이야 바하살로(Raija Vahasalo)는 청년 보장제와 종합학교에서의 진로탐색 지원이 청년들을 지원하는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함

제목	과학교육의 발전을 준비하는 실무진
원문제목	Työryhmä valmistelemaan tiedekasvatuksen kehittämistä
정보원	OPM(2013.7.1.)
주제분류	기타
키워드	과학교육, 국가 경쟁력, 교육 총괄 기구

- ◆ 2020년까지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핀란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문화부는 국가과학 교육발전 실무진을 구성함. 과학교육과 연구에 관한 아동과 청소년의 관심을 늘리는데 목표를 둔 국가과학교육발전 실무진의 총괄 책임자는 교육문화부 리따 마이알라(Riitta Maijala)이며, 국가교육위원회 리아 호우스토포넨(Lea Houtsonen), 헬싱키대학 과학교육학과 교수 한누 살미(Hannu Salmi), 핀란드 학술진흥회 마에 리스 탄너(Maj-Lis Tanner), 알토대학 공학

과 학생 오스카리 빈코(Oskari Vinko), 교육문화부 고문 아끼 톨버그(Aki Tornberg)와 총감 사관 에바 까우니스마(Eeva Kaunismaa)의 위원들임

- ◆ 핀란드에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기구들은 많으나 그 기능이 현재 분열되어 있어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 실무진의 첫 임무는 과학교육의 당사자들과 활동, 재정범위와 전달체계의 현주소를 확인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와 과학센터, 과학경진대회를 통해 과학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이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는 것임. 유럽과 핀란드의 국가정책은 평생학습의 원리를 통해 시민의식을 키우고 숙련과 지식을 갖춘 젊은 과학자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자들을 양성하는 데 있음

제목	교육문화부 장관, 디지털 학습 환경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활용 권장
원문제목	Opetusministeri Krista Kiuru: Digitaalisista oppimisympäristöistä ja pilvipalveluista täysi ilo irti!
정보원	OPM(2013.7.1.)
주제분류	교육정보화
키워드	신 디지털 기술, e-러닝, 클라우드 서비스

- ◆ 교육문화부 장관 크리스타 끼우루(Krista Kiuru)는 교육과 훈련의 발전을 위해 학습 환경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신 디지털 기술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함. 끼우루는 e-러닝의 잠재성과 활용을 우선과제로 두고 실질적인 실행과 요건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 새로운 유형의 응용기술과 학습내용 및 e-러닝과 같은 학습과정을 포함한 기술을 장려하지 못하면 국제 정보사회에서 뒤쳐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현재 기술적인 장비는 갖추어져 있으나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함. 또한, 신 디지털 기술과 클라우드 서비스는 학교의 학습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핀란드의 게임 산업과 ICT의 명성을 이용하여 핀란드 교육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좋은 기회와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함

제목	일반고와 직업고를 위한 복지와 생활기술 프로그램
원문제목	Hyvinvointia ja elämänhallintataitoja edistävä ohjelma lukioille ja ammatilliseen koulutukseen
정보원	OKM(2013.6.24.)
주제분류	교육복지, 학생생활지도, 학교안전
키워드	학생복지강화법, 프로그램 개발

- ◆ 교육문화부는 일반고와 직업고 학생들의 폭력과 따돌림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복지와 대처 기술 및 따돌림 방지를 위한 연구기반 프로그램 개발을 착수함. 전수조사에 따르면 후기 중등교육으로 전향하는 시기에 학업소진이나 우울증, 외로움 등이 학생들의 학교이탈과 사회 일탈을 주로 야기한다고 함. 중등교육단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에 대한 불안감에 관한 임상적인 임계값을 낮추고 교사의 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될 프로그램은 2018년 말까지 모든 중등학교에 무료로 제공될 예정임. 이 프로그램은 2014년 8월 의회에서 진행 중인 “학생 복지강화법” 지원을 위한 것이며 법안 안에는 중등교육의 학생복지서비스 확대, 학생회 활동 강화, 부처나 부문별의 협력강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음

제목	의무교육 이후, 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더 마련
원문제목	Peruskoulun jälkeisten opiskelupaikkojen täydennysahaku aukesi
정보원	Helsingin Sanomat(2013.7.5.)
주제분류	교육과정/교수방법, 교육복지, 평생교육
키워드	학습기회, 후속교육, 미진학 학생, 학습 부진아, 중도탈락자

- ◆ 핀란드 후기 중등교육과정의 입학은 7학년부터의 성적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학생들이 학습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교육부는 9,000개의 추가지원 자리를 마련함. 이 중 4,700여 개는 직업교육에 할당되고, 4,200여 개는 일반고에 할당됨. 또한, 올봄부터 학습 부진아를 위해 6,300여 개의 초등학교에 추가로 10학년 과정을 개설함. 국가 교육위원회 학생담당관리관 안니카 그롬홀름(Annika Grönholm)은 “만일 학생들이 학교 이외의 가까운 학습현장에서 배우고자 할 마음만 있다면 이는 여러모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함
- ◆ 중도탈락자들을 위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워크숍과 연계하여 학습을 지원하고 있음. 헬싱키시의 청소년 복지 담당자인 민나 플르크트만(Minna Flyktman)은 “저희 인력으로는 모든 학생들을 돌보기에 충분치 않지만 이 기회를 통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디에서든지 학습공간을 찾을 수 있다”고 함

제목	현직 교사 4명 중 1명은 가르치는 분야를 바꾸고 싶어 함
원문제목	Opettajat ääri-ajoilla? Joka neljäs opettaja haluaa vaihtaa alaa
정보원	Itä Sanomat(2013.7.16.)
주제분류	교원정책
키워드	교사 재교육과 훈련, 교사처우, 근무환경, 담당 교과목 변경, 이직

- ◆ 교사의 1/4 이상은 학급교사에서 교과목 교사가 되기 위해 재교육과 훈련을 고려하고 있고, 1/6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임기간에 다른 분야의 직업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번 가을에 발간될 핀란드교육연구저널에는 교사의 만족도와 함께 담당 교과목이나 분야를 바꾸고자 하는 교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직교사들이 학생지도에 많이 힘들어 하고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임신희직을 하였을 경우에는 자리에 대한 불안감도 느낀다고 함. 5년 전에는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은 급여로 인해 전체 교사의 1/5 이상이 이직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고 함
- ◆ 교원 노조(OAJ)의 장인 올리 루카이넨(Olli Luukkainen)도 “새로 부임한 교사들의 반 이상이 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교사로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교사라는 전문직이 더 이상 매력을 끌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교사들은 적어도 부임한 첫해에 전문훈련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결국 교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과 지자체와 개별학교의 행정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젊은 교사들의 근속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함

제목	파견 교사가 학교에 진출
원문제목	Vuokraopettajat tekevät tuloaan koulumaailmaan
정보원	YLE(2013.7.25.)
주제분류	교원정책
키워드	신규 교육사업, 교사 파견 대행, 임시교사, 교사임금

- ◆ 핀란드 남서부 투르쿠(Turku)에서 한 사기업이 학교에 교사 파견을 대행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사업을 시작함. Kouluun.com이라는 이 업체는 병가를 낸 교사를 대신할 보조교사를 1시간 30분 이내에 찾아 파견해 준다고 함. ‘꼬울룬 닷 콤’의 흐르스끄씨(Petri Hyrsky)

교육정책네트워크

는 “파견 대행 서비스가 학교장의 업무를 용이하게 하며 모든 교장들은 이 서비스에 매우 만족한다”고 함. 또한, “파견될 개별교사의 숙련이나 업무에 따라 임금은 다르지만 노조에 서 규정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며 일상적인 수업계획이나 행정적인 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파견대행 서비스를 통해 일해 본 적이 있는 영어교사 알토넨(Tiia Aaltonen)씨는 “단체협상에서 규정된 임금의 반도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기업들은 석사 학위를 마치거나 마치게 될 자격 있는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의 기회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함

- ◆ 이에 대해 교원노조(OAJ)의 히에타란타(Kirsti Hietaranta)씨는 임시교사에게 1시간당 15유로(한화 2만 2천 원)정도의 낮은 임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학교와 기업과의 협력은 지지하나 지자체에 속한 학교들이 고용계약서에 대해 법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함(현재 노조의 단체협약에서는 60 ECTS(1년 과정)의 교직과정을 받고 석사학위를 마친 자격 있는 교사는 시간당 35유로 이상을 지불하며 자격 없는 교사들은 10유로가 약간 넘게 지급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제목	교육에서 임시직이란 있을 수 없다
원문제목	Vuokratyövoiman käyttö opetuksessa ei ole mahdollista
정보원	교원노조(OAJ)(2013.7.26.)
주제분류	교원정책
키워드	교사단체협약, 교사 파견, 교사임용

- ◆ 교원노조(OAJ)는 종합학교나 일반고 혹은 직업고에서 교사 파견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함. 기본교육법(1288/1999, §4 and §37)에 따르면 지자체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기본교육에 관해 다룰 경우 이는 교육부가 인정한 단체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 또한, 교원노조는 “교사는 교육제공자가 직접 고용하여 교사의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고나 직업고에서 임시직이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함. 그리고 교사 파견을 대행하는 업체는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에 묶여 있지 않으나 임시직 파견을 대행하려면 교사단체협약(OVTES)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함. 따라서 최근 핀란드 투르쿠 지역에서 행해진 사기업의 교사 파견 대행에 대한 계약은 지자체에 우선권이 있다고 언급함

제목	학부모들, 지역사회사무소에 학교실내공기 문제에 관해 불만을 토로함
원문제목	Koulujen sisäilmaongelmasta kantelu aluehallintovirastoon
정보원	깔레바 일간지(KALEVA)(2013.8.1)
주제분류	교육시설, 교육복지, 학교안전
키워드	학교생활 공동체, 학교실내 공기, 학습 공간

- ◆ 북부핀란드 학부모들이 국가지역사무소에 뿌다시야르벤(Pudasjärven)시의 학습 공간 배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함. 시는 시설이 낙후되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꾸레날라(Kurenala)와 리민깡가스(Rimminkangas)의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불만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업하도록 강요함. 또한, 시는 도서관이나 스포츠 시설뿐만 아니라 상업 지구에 있는 어린이 집에 특별수업과, 유치원과정, 1~2학년과정을 위한 학습공간을 인위적으로 배치함. 학부모 협회장은 실내공기가 좋지 않는 건물에 인위적인 학습공간을 배치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 공동체가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함. 핀란드 북부 학교들은 남부나 서남부에 있는 지자체들에 비해 시설이 낙후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제목	교사의 고용계약
원문제목	Keskitetty sopimus tukee työllisyyttä
정보원	교원노조(2013.8.30.)
주제분류	교원정책
키워드	고용정책, 교사 단체협상, 예비교사, 임시직, 계약기간

- ◆ 소득인상액조정안에 따라 20만 명이 넘는 지자체, 중앙정부, 대학, 그리고 교회의 공공부문의 전문직들의 근로협상기구(FOSU)와 전문경영진연맹(YTN)은 10월 20일까지 개인과 단체 협약에 따른 임금인상과 연금 관련 단체협상을 하게 됨(민간부문을 위한 단체 협상 기구인 전문경영진 연맹은 상업과 서비스, 산업부문의 핀란드 전문직 및 노동조합연맹(Akava) 위한 협상과 계약에 관련된 활동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소득수준과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데 주목적을 둠)
- ◆ 노조단체들은 국가의 경제 성장은 내수투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며 단기고용 이후에 받는 실업수당이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 또한, 정부는 단기근로계약이 노동의 활발한 이동과 고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1년 이상의 장기근로계약이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교원노조(OAJ)의 장인 올리 루카이넨

(Olli Luukkainen)과 빠르띠 뽀로까리(Pertti Porokari)씨는 고용과 성장을 위한 노사 간의 협상 결과는 받아들여겠지만 앞으로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함. 이에 따라 임시직이었던 예비교사의 1년간의 단기근로계약도 지자체의 예산사정에 따라 장기근로계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짐

제목	교육 복지와 평등 관련 법안: 교사의 권한 강화 vs 학생의 자율성 보장
원문제목	Lakiehdotus: Opettajalle lupa takavarikoida oppilaan puhelin jopa voimakeinoin
정보원	YLE(2013.8.27.) / Iltta-sanomat(2013.8.21.)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교사 권한, 교육법, 스마트폰, 에너지 음료, 학생 자율권

- ◆ 핀란드의 많은 교사들이 수업 중에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다고 불평함. 대부분 학교는 교실로 이동하기 전 휴대폰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배치하고 있으나 보관은 학생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교육문화부 고문 야네 오베그(Janne Öberg)는 “스마트폰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수업 중 게임을 하거나 자료를 다운받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학습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다”고 함. 교육당국은 교사가 학생들을 다루기 힘들 경우 휴대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내 지도 입법안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사들은 강제로 휴대폰의 사용을 금할 수 있거나 필요하다면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쫓아낼 수 있음. 오베그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만 따르기 때문에 교사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 또한, 최근 ‘학생들이 과다한 카페인 들어있는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것이 불법이다’는 법무부 차관의 결정에 따라 팜페레 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것을 금하도록 함. 법무부는 산업 간의 분쟁을 야기하더라도 변경할 방침은 없다고 함. 현행법에 따르면 교사는 어떤 경우에도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강제로 몰수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법안에는 변경 조정될 것이라고 함. 핀란드 교원노조와 교장단도 이러한 방책에 사뭇 기대하고 있지만 새로운 입법안은 학교가 대상이나 자료들에 대한 규범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변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 반파 지역의 미콜라(Mikkola) 학교장인 메르야 꼬우까(Merja Koukka)도 새로운 입법안은 여러 좋은 점들도 있지만 일부 극단적인 방책들도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가 에너지 음료나

모바일 사용과 관련된 규칙들을 학생에게 분명히 하여 중간에 대책을 세울 수도 있다. 교사는 학교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사전에 해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몰수’라는 단어는 걱정과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미콜라 학교에서도 수업 방해는 매일 일어나지만 일반적으로 교사가 개입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학교가 사회 밖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만일 학습과 흥미를 위해 휴대폰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다른 상황에서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했으며, 교육부 사무관도 꼬우까의 전망은 공감하나 “모든 이들이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만 하나 모든 지자체가 모든 학생에게 비싼 스마트폰을 구매해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하며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기술을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 사이의 평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함

제목	기업의 현장학습으로 인해 학교의 직업교육과정은 축소
원문제목	Ammattikoulujen säästöt siirtävät opintoja pakosta yrityksiin
정보원	YLE(2013.8.28.)
주제분류	직업교육
키워드	직업교육, 현장학습, 수업시수, 재정축소

- ◆ 직업교육에서 학교교육보다 현장학습(on-the-job learning)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은 학교보다 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 교원노조와 교육훈련제공자에 따르면 현재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이 강행되고 있으며 직업훈련센터에서는 재정절약에 대한 파업을 함
- ◆ 핀란드 남서부 뽀리(Pori)지역에 위치한 싸따쿤따(Satakunta) 직업학교와 학생, 교원노조 대표들은 직업교육 개혁으로 인해 직업학교의 수업시수가 줄어들고 있어 기업과 협상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함. 최근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인해 전문 직업교육기관들은 직원 수를 대폭 줄이고 이에 따른 학생 상담시간마저 줄이고 있음. 직업학교 교사들은 일터의 현장학습이 늘어나는 바람에 교사의 입지가 더욱 좁아짐. 올해 싸따쿤따 직업학교도 정부로부터 재정이 줄고 학생 등록인원 수도 또한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제목	과학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문화부의 새로운 지침
원문제목	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 hakee uusia avauksia tiedekasvatuksen kehittämiseksi
정보원	교육문화부(2013.9.10.)
주제분류	교육과정/교수방법
키워드	과학교육

- ◆ 교육부는 과학교육 실무진과 2014년 5월 발간될 과학교육과 문화사업 개선사항에 관한 지침서를 준비하고 있음. 또한, 과학과 연구에 관한 아동과 청소년의 관심을 늘리기 위해 교육문화부는 10월 중순부터 과학교육프로젝트에 10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임. 이 프로젝트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디지털 정보 이용, 정보네트워크와 사회미디어의 개방에 대한 주제들 가운데 선정될 예정임. 무엇보다 어린이집과 초·중등학교에서의 과학 활동, 방과후 과학클럽이나 캠프활동, 과학센터와 경진대회에 중점을 둬. 과학교육 워크숍에서 다루었던 각기 다른 주제들에 대해 교사나 학습자들의 개인 의견을 온라인상에 올려 이를 반영할 수 있음. 프로젝트의 준비사항과 앞으로 하는 워크숍 주제들은 과학교육 사이트(<http://tiedekasvatus.wordpress.com>)에 올려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임

제목	조사결과, 학생의 연산능력은 향상되었으나 수업태도는 안 좋아짐
원문제목	Koululaisten laskutaito lisääntyy, mutta asenteet muuttuvat kielteisiksi
정보원	헬싱킨 사노맛 일간지(2013.9.2.)
주제분류	입시/평가
키워드	연산능력, 읽기능력, 수업태도, 학업능력발달

- ◆ 국가교육위원회는 2005년~2013년 동안 3학년, 6학년, 9학년에 해당하는 3,500명의 동일 연령대 학생들의 학업능력발달을 조사함. 92%의 학생들이 기본연산능력은 향상되었으며, 스웨덴어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결과가 핀란드어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향상되었음. 반면, 수학연산능력은 향상되었지만, 수업태도는 더 안 좋아졌으며 특히, 3학년보다 9학년이 수업태도가 더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과제나 출석, 협력학습과 같은 부분에서는 더 나아짐
- ◆ 특수교사인 마띠 수오밀라미(Matti Suomilammi)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의 요구사항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사춘기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일반적으로 떨어지고, 학생들이 교과내용을 안다고 생각하면 학습태도가 금방 안 좋아진다.”고 말함

- ◆ 스웨덴어학교는 3학년 때 학생들이 핀란드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은 성취를 보였음. 9학년 때에 가서는 스웨덴어 다음으로 영어를 잘 구사한 것으로 나타남. 9학년 남녀 학생들의 읽기능력은 핀란드어나 스웨덴어 학교가 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남학생 63%, 여학생 37%로 남학생들이 더 읽기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스웨덴어 학교는 언어수준이 뒤떨어진 아이들이 3학년에 다소 많았으나 언어 차가 극복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학생의 학습결과는 학부모의 학력과 가치관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제목	의무교육 연령 연장
원문제목	Etu-Töölön lukiolaiset kannattivat oppivelvollisuuden nostoa
정보원	헬싱키 사노맛 일간지(2013.8.31.)
주제분류	교육개혁, 교육복지
키워드	기본교육, 의무교육 연령, 디지털 학습 자료, 청년사회보장제

- ◆ 국가교육위원회는 의무교육 연령을 10학년까지 1년 더 늘리기로 함. 고용경제부는 이러한 교육개혁으로 연간 1억 유로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이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함. 교육개혁 이후에는 기본교육을 마친 모든 청년은(기본교육을 마치는 학생은 해마다 4~5천 명임) 고등학교나 직업학교, 10학년, 작업장에서 학업을 계속해야 함(현재 의무교육은 9학년까지이며 기본교육을 마치는 17세의 연령에 마치게 되어있음)
- ◆ 교육부 장관 끼우루는 값비싼 교과서 대신 디지털 학습 자료를 이용하면 의무교육 1년 연장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힘. 반면, 산업연합회(Confederation of Finnish Industries, EK)의 미르야 하눌라(Mirja Hannula)는 청년들을 위한 학생복지와 직업훈련 보조금으로 청년 사회보장제(Youth Guarantee)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함

제목	대다수 학교에서 학교와 가정의 날 행사를 기념함
원문제목	Kodin ja Koulun Päivää vietetään lähes tuhannessa koulussa
정보원	국가교육위원회(2013.9.23.)
주제분류	학부모
키워드	학교와 가정의 날

- ◆ 올해로 3번째로 맞이하는 전국적인 학교와 가정의 날 행사(9월 27일)는 가족과 자녀, 학교 교직원들이 서로 만나 즐거움 안에서 친밀감과 상호 신뢰를 쌓을 좋은 기회임. 육아지원 및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협력과 연계를 위해 순록 구분 짓기, 정원일, 자연 안에서 산책, 교장 선생님과 오전 티타임, 노르딕 걷기, 포리지(porridge)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들을 함. 이날 행사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원노조, 핀란드학부모협회, 핀란드 교장단, 핀란드 스웨덴어 학교 교사협회(FSL), 핀란드 스웨덴어학교 학부모 교사협회, 교육문화전문가단체(OPSEA)들이 지원하며 핀란드 슬롯머신협회로부터 거의 모든 재정지원을 받음. 후원자인 교육부 장관 끼우루는 “이날 행사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서로 만나 학생의 복지와 교육을 논의하고, 사회활동의 균등한 참여를 통해 학교와 가정의 공동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함

제목	조사결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상승
원문제목	Entistä useampi pitää koulunkäynnistä
정보원	헬싱키 사노맛 일간지(2013.9.17.)
주제분류	교육복지,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학교보건 조사, 학교생활 만족도

- ◆ 최근 학교보건 표본조사에서 학생들은 학교가 재미있다고 함. 2년 전만 해도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50% 이하였는데 고학년 남학생들 사이에 60%를 넘어섰으며 더 많은 남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함(핀란드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학교 중퇴율이 높음). 일반고와 직업고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도 80%에 이룸. 올해 처음 183,000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보건표본조사에서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공부환경 또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함. 따돌림과 학교폭력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들은 또래그룹들의 관심이 학교생활의 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함. 하지만 응답자의 90% 이상이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은 줄어들고 오히려 청소년들과 여가를 함께 보내는 보호자들이 학생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함
- ◆ 연구 책임자인 선임연구원 레이야 빠아랄렌(Reija Paalanen)은 청소년의 생활이 많이 개선되었고 가정과 또래그룹뿐만 아니라 학교의 복지가 학교 만족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함. 기본교육과정과 후기중등교육과정의 남학생들은 적어도 한 명의 친구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알코올과 담배나 도박도 많이 줄어들음.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8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며 기본교육과정의 학생들의 1/3이상이 고등학생들보다 수면을 덜 취한 것으로 나

타나 수면부족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의과대학의 심리학자들은 조사과정 가운데 응답자 가운데 1/2정도가 만나기 무척 어려운 학생들이었다고 함

제목	교육예산 삭감으로 직업고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됨
원문제목	Opiskelijat joutumassa koulutusleikkausten maksumiehiksi
정보원	핀란드 교원노조(OAJ)(2013.9.23.)
주제분류	직업교육, 교육재정
키워드	교육예산 삭감, 직업고, 교육의 질

- ◆ 교원노조는 교육예산 삭감으로 학생들의 직업교육과 훈련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음.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학생수에 따른 단위별 예산 삭감은 교육과 상담인력의 감소를 가져오고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교원노조의 장 올리 루카이넨(Olli Luukkainen)은 지적함
- ◆ 교원노조는 조기개입과 적절한 상담 및 작업장에서의 안전이 중요한 마당에 예산삭감으로 인해 매해 100명의 인원이 감축된다고 주장함. 하지만 정부는 2016년까지 10~12%의 예산을 절약할 수는 있다고 봄. 예산 삭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금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며, 교원노조는 이에 대해 교사와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표명함. 매년 3만 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직업자격을 취득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예산지원 부족으로 한 명의 실업자를 낳는 것은 연간 18,000 유로의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배제는 수만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함. 교원노조는 10월 3일까지 6개 지역을 순회하며 교사와 작업장의 강사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사결정자들과 모임을 가질 예정임. 이 모임은 유어나 대학부문의 교원노조 40주년 행사와 맞물려 있어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리라 봄

제목	초등학교 입시경쟁
원문제목	Kuusivuotiaat kilpailevat pääsykokeissa koulupaikoista Tallinnassa
정보원	헬싱키 사노맛 일간지(2013.10.6.)
주제분류	입시/평가
키워드	교육 불평등, 초등학교 입시, 입학 경쟁률, 사립유치원

- ◆ 신자유주의와 신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발틱3국 가운데 하나인 에스토니아 탈린에 거주

교육정책네트워크

하는 아동들은 가장 우수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6세부터 경쟁과 입시를 준비한다고 함. 초등학교 입시준비를 위해 비싼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극성부모들로 인해 정부는 교육의 불평등 및 형평성과 수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또한, 가장 인기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경쟁률은 헬싱키대 수의학과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함. 국가와 시가 운영하는 레알리코울루(Reaalikoulu)는 사립유치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있고 지원자의 상위 6%만이 입학이 가능하다고 함. 한 달 동안 40~80유로에 이르는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로 말미암아 부의 대물림과 교육의 불평등이 야기될까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함

제목	후기중등교육에 전문교과과목 포함
원문제목	Ammattiopintoihin halutaan lisää yleissivistystä
정보원	헬싱킨 사노맛 일간지(2013.10.8.)
주제분류	교육개혁, 교육과정/교수방법, 평생교육
키워드	교육과정, 일반고, 직업고, 직업교육, 실습, 평생교육

- ◆ 평생교육 차원에서 근로생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일반고에 전문교과과정을 신설함(현행 교육법은 18세가 되어야 전문교과나 체육교과와 보건교과들을 선택할 수 있음). 산업계와 학생의 요구를 함께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후기중등교육 교과과정을 대폭 개정하고 있음. 모두에게 일반 공통 교과목은 중요하며 2014년 가을부터 변경되는 법안에서도 직업학교 학생들이 더 많은 일반 교과목을 수강해야 함. 교육위원회 세이아 라스쿠(Seija Rasku)는 “현재는 공통교과목이 작은 비중이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일반고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수학, 자연과학, 사회문화기술뿐만 아닌 사회나 일터에서 필요한 기술들도 다루게 됨. 이러한 현상은 직업고와 일반고가 함께 받아들이고 있음
- ◆ 국가교육위원회의 장 아울리스 삐뜨칼라(Aulis Pitkälä)는 급변하는 일터에서 직업고의 교과과정을 더욱 유연하게 하기 위해 공통의 교과과정을 더 늘렸으며 직업고학생들도 쉽게 트랙을 변경하여 일반고로 갈 수 있다고 함. 교과과정에는 전문, 공통, 선택과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을 스스로 설계해야 함. 선행학습을 쉽게 인정하는 모듈들을 개발하며 분리된 직업교육(학습)과 도제제도(일터)의 유연한 결합을 추진하기 위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있음. 일반고나 직업고에서 받은 선택과목들은 대학이나 폴리텍, 개방대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근로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터의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핀란드에서 일반고 및 직업고의 성인비율은 일반고가 2~5%, 직업고가 10%임

제목	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삶의 기술과 복지 프로그램'
원문제목	Elämänhallintataitojen ja hyvinvoinnin edistämistä kehittävä ohjelma valmisteilla myös toiselle asteelle
정보원	교육문화부(2013.10.11.)
주제분류	교육복지
키워드	따돌림, 학교폭력, 학생복지, 끼바 교울루 프로그램, 삶의 기술과 복지 프로그램

- ◆ 교육문화부는 일반고와 직업고의 따돌림이나 폭력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복지와 대처기술을 증진하기 위해 재정을 따로 마련함. 종합학교에서 후기중등학교로의 전환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소진, 우울증, 외로움과 같은 공통의 문제가 있고 특히 사회배제의 위험을 줄이고 학생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함. 2013~2018년에 걸쳐 진행될 끼바 교울루(KiVa Koulu)의 후속 프로그램인 “삶의 기술과 복지 프로그램”은 특히 일반고와 직업고에 중점을 둠
- ◆ 현재 개발하는 운영프로그램은 2018년 모든 (후기)중등학교에 무료로 이용될 예정임. 이 프로그램은 기본교육을 기반으로 했던 끼바프로그램의 일부를 보완해서 운영하며 기본요소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용하며 프로그램 보급 이전 모든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할 예정임

제목	핀란드 학교에서 미래체육 수업이 사라질 위험에 처함
원문제목	Liikuntajärjestöt pelkäävät koululiikunnan puolesta - OAJ väläyttää rajoituksia rehtorin sakkotuomion takia
정보원	YLE(2013.9.28.)
주제분류	학교안전, 교원정책, 교육재정
키워드	안전사고, 체육수업, 스포츠 활동, 교원 책임

- ◆ 작년 1월 한 중학교에서 8학년 학생이 스키 수업 중 부주의로 인해 척추에 부상을 입음. 당시 교사는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사고는 교사가 보지 않은 다른 그룹에서 일어남. 이로 인해 담당교사가 아닌 학교장이 학생소홀로 인한 벌금 680유로를 지불함(핀란드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날 시에 모든 책임은 담임교사가 아닌 교장이 지며, 심하면 지자체로부터 파면됨). 이에 교원노조 장인 올리 루카이넨(Olli Luukkainen)은 성명을 통해 “사고가 일어나면 마치 교장이나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함. 이러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스키나 달리기 등 야외 스포츠 활동과 같은 핀란드

의 전통적인 스포츠 문화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봄. 국가운동 및 스포츠 협회(Valo)장 티모 라이넨(Timo Laitinen)은 “만일 모든 이가 책임지기를 두려워한다면 사람들은 이제 등반도 하지 않을 것이다”며 교사책임한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로 인해 모든 교사들은 안전과 스포츠 교육 활성화라는 난제에 직면하게 됨

제목	고등학생들이 학교 따돌림과 폭력방지를 위해 스웨덴모델 도입 주장
원문제목	Lukiolaistet: Ruotsista mallia koulukiusaamisen estämiseen
정보원	헬싱킨사노맛 일간지(2013.10.21.)
주제분류	교육복지,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학교 따돌림과 폭력, 학교평화법안, 교원 역할

- ◆ 핀란드 고등학생들은 학교 따돌림과 폭력 정책 부재에 대해 정부에 냉소적이면서 스웨덴과의 동맹조약에 따라 교육법은 따돌림과 폭력을 공지할 의무를 어긴 학교장과 교직원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함. 핀란드 국회는 학교평화법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학생뿐만 아닌 학교교직원의 책임과 의무에도 맞추어져 있음. 후기중등학교학생협회장 다니엘 사조노브(Daniel Sazonov)는 입법수준에서 이를 검토해야 하며 학교 따돌림과 폭력방지 및 개입을 위한 교사와 교장의 역할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는 “교육훈련제공자의 일반계획과 통제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학교보건조사 따르면 대다수 성인들이 따돌림과 폭력에 잘 개입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는 의무교육의 연장을 고려할 때 학교중퇴의 실제 한 원인이 되는 따돌림이나 폭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함

제목	교원노조, 의무교육연령 상향에 제한을 둘 것을 제안
원문제목	OAJ rajaisi oppivelvollisuusiän noston syrjäytymisvaarassa oleviin
정보원	헬싱킨사노맛 일간지(2013.10.17.)
주제분류	교육복지
키워드	의무교육연령, 의무교육연장, 교육평등, 학업중단 청소년

- ◆ 교원노조는 의무교육을 17세까지 연장하면 추가예산이 수십만 유로 정도 발생하니 문제 청소년만 의무교육연령을 상향을 적용할 것을 주장함. 국가교육위원회는 17세까지 의무교육을 늘리는 정치적 의제를 구조화하기로 결정하여 입법안 개정이 준비되고 있음. 의회의 교육문화위원장 사라 바하살로(Sarah Vahasalo, 국민연합당)는 의무교육연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나 “만일 상향해야 한다면 이는 학업을 계속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것

이어야 한다”고 함.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연간 1,000~2,000여 명에 달함.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의무교육에 대한 학교자료들을 모든 사회가 부담해야 하므로 비용 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야 하며 모두를 위해 지원할 경우 의회는 각 지자체들이 매년 1억 유로의 비용을 인상해야 한다고 함

- 교원노조는 초등과 중등교육 이후 학업을 계속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수업규모이나 작업장 규모를 10명 이하로 제안하면서 국가가 교육훈련제공자에게 특별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함. 교육문화위원회 예바 요한나 엘로란난(Eeva-Johanna Elorannan, 사민당)은 “사회적 약자들만을 위한 의무교육 연령제한은 실로 이상하다. 이는 근본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모든 청소년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사회적인 배제를 받았다 하여 이들에게만 무료교재를 줄 수는 없다. 문제는 아주 적은 돈이지만 이는 아주 큰 것이다”고 주장함. 또한, 엘로란나는 “핀란드는 의무교육기한은 짧지 않다. 터키는 핀란드보다 더 짧다”고 함. 국민연합당은 “현재 경제상황에서 의무교육상한은 효율성이 없다. 이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필요한 개인 상담을 늘려야 한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의무교육연장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지 게으른 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이미 중학교에서 문제가 있으며 개인적인 통제가 먼저 필요하다.”
- 의무교육연령상한은 현 교육부 장관 끼우루(Krista Kiuru, 사민당)와 전 교육부장관 구스타르손(Jukka Gustafsson, 사민당)이 지원하였고 노동부 장관 라우리 이할라이넨(Lauri Ihalainen, 사민당)은 가치 있는 일이라 여김

제목	교사들은 사설교습이 제공하는 교육 불평등에 조바심을 비침
원문제목	Opettajat näkevät maksullisessa tukiopetuksessa tasa-arvo-ongelman
정보원	YLE(2013.10.29.)
주제분류	기타
키워드	공교육, 교육평등, 사설학원, 학습의 상업화, 학업지원

- ◆ 헬싱키에서 개인사설학원은 연간 10%로 고도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은 학부모들에게 자녀 학습증진을 위해 사립학원에 비용을 지불한다면 공교육이 무너지게 된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함. 교원노조는 학습의 상업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현상이 더 진척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함. 교원노조의 장 올리 루카이넨은 “이는 공교육이 자녀들을 위한 충분한 서비스와 교육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징후다. 일부 학부모들은 그것을 살 수도 없

으며, 일부는 이에 대해 인식도 못 하고 관심조차도 없다.” 초등학교에서 학업이 뒤쳐진 학생들은 학업적인 지원을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학부모들은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 교육부 고문 유씨 뼈까라는 상업화의 문제는 평등의 문제와 연결되며 학부모와 보호자가 교육적인 지원에 대한 관심을 공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반면, 개인교습은 마치 개인보건과도 같아 학부모나 자녀가 만일 공공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사립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 그러나 교육부는 공교육시스템이 적절하다고 강한 견해를 피력하며 “지자체는 모든 자녀들에게 학습과 학교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함

제목	교육부 장관, 학생의 학습능력 하향 곡선에 우려
원문제목	Opetusministeri Kiuru: Oppilaiden osaamistason lasku pysäytettävä
정보원	교육부(2013.11.14.)
주제분류	입시/평가, 학부모
키워드	학생 학력, 사회경제적 배경, 학부모, 미래교수법, 교육평등

- ◆ 핀란드 학생들이 국내 및 국제학업성취도결과 이해력, 읽기, 수학, 사고력과 같은 중요한 학습능력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있음. 핀란드 학생의 문해력은 2009년 국제학업성취도(PISA) 결과에서 536점에서 490점으로 떨어졌으며, 헬싱키대학교 교육평가센터에서 2001년도와 같은 학교와 학년을 대상으로 2012년 봄에 조사한 9학년의 지식과 태도, 사고와 읽기, 수학적 사고와 같은 학교교육 전반에 관련된 기술들을 평가한 결과, 2000년도 이래 읽기와 수학에서 하향곡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한 교육부 장관 끼우루(Krista Kiuru)는 학생의 격차가 늘고 있다며 하향 곡선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학부모의 교육배경이라고 언급함. 조사결과 학교에서 학생들의 삶은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많은 영향을 받는데 학교가 이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 ◆ 끼우루는 “핀란드에서 뒤쳐진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어떻게 끌어 올리느냐가 현 교육체제에서 큰 도전과제이다. 현재의 교수방법이 학생의 개인적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틀에 박힌 교수시간보다, 미래학습에 걸맞은 미래교수법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는 사회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어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동시에 가정과 학교는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학교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학생의 가정배경과 평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현 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지는 비판적으로 평가해보아

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는 평등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실행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모든 자녀들이 동등한 학습의 기회와 자아개발 기회를 가지도록 스스로 나서야 하며 학교는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함. 현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감소에 따라 교육평등에 가치를 둔 중앙정부 보조금을 신설하였으며, 2014년부터 기존 중등학교 7학년부터 적용했던 4~10등급까지의 학력 평가기준을 지자체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부터 적용함

제목	위기 청소년을 위한 교사와 부모, 지자체의 역할
원문제목	Opettajat eivät tunne oppilaita
정보원	싸본 사노맛(2013.11.12.)
주제분류	교육복지
키워드	위기 청소년, 사회비용, 복지사회, 사회배제, 교육과 문화

- ◆ 탐페레대학 마띠 림 라(Matti Rimpelä) 교수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심리학자나, 사회복지사나 정신병리사의 수효를 늘릴 것이 아니라 매년 2,000여 명의 청년들을 지자체에 고용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주장함.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비용만 하더라도 2005년 30억 유로였던 것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20억 유로에 이르렀고, 오울루 시는 사회부적응이나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 2005년에 805만 유로였던 것이 2012년도에는 1,584만 유로로 증가하였음
- ◆ 농경문화에서 정보기술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부모와 교사들은 13~29세의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으로 인해 고통받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함. 특히, 15~16세 사이 사회배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직 직업훈련에 준비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이른 시기에 진로를 결정하게 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며 복지국가의 도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핀란드 교육시스템 안에서 13~29세까지는 천천히 성장하여야 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키워주는 수업을 늘리고, 교사들은 학생의 감정에 익숙해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함
- ◆ 림 라는 대다수 정치가들이 교육에 문화의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1980년대에는 가족상담사가 있었고, 1990년대 경기 침체에 교육에 하는데 가족의 문제가 핵심이었지만, 현재는 평생교육차원에서 사회지원의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고 분석함. 현재는 부모의 교육과 역할이 점차 그 기능을 잃어 처벌할 수 없고, 부모의 삶이 자녀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언급함. 20년 후에는 부모와 자녀의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의문이라고 함

제목	학급당 평균 학생 수 감소
원문제목	Opetusryhmien keskipkoko pienentynyt viime vuosina
정보원	국가교육위원회(2013.11.12.)
주제분류	교육복지
키워드	기본교육, 정부보조금, 학급당 학생 수

- ◆ 전국교사 자료에 의하면 기본교육의 학급당 학생 수를 3차에 걸쳐 조사한 결과, 큰 규모의 학급들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1~6학년의 학생 수가 25명 이상인 학급은 2013년에는 12%이고, 2010년에는 17%, 2008년에는 20%였음. 2010년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19.21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18.84명임. 대부분 3~6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었으며, 학급의 규모는 1학년을 제외하고 모든 학년에서 줄어들었음
- ◆ 교육문화부 장관 끼우루는 기본교육에 대한 재정이 올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앞서나가고 있다고 함. 교육문화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2010년 이래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2013/2014년 이에 할당되는 예산은 30백만 유로에서 60백만 유로로 증가함. 이처럼 국가의 보조금으로 전국의 학급당 학생 수의 규모를 줄여온 배경은 기본교육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당히 유지함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평등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 계층 간극을 줄이며, 학생의 개인학습과 학교지원 및 상담뿐만 아니라 학습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기 위함임

제목	교수방법 혁신: 흥미와 동기부여에 우선을 둬
원문제목	Puheenaihe: Ketä kiinnostaa riekon ruoka?
정보원	아무레띠 일간지(2013.11.12.)
주제분류	교육과정/교수방법
키워드	공동체성, 교수방법 혁신, 국제학업성취도, 학업소진, 사회배제

- ◆ 핀란드는 지난 10년 동안 국제학업성취도(PISA)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후기중등교육과정의 학생들은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업소진으로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함(2013 PISA 성적결과는 OECD 수준보다 많이 하락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학교는 정보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핀란드 대통령 싸울리 니니스토(Sauli Niinistö)는 10월 28일 YLE 오전 뉴스 인터뷰에서 후기중등교육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청년들이 겪는 사회배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

며 학교 안에서 공동체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학교가 학생들에게 좋게만 대할 필요는 없지만 청년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사들은 학생에게 흥미와 동기부여를 하는데 우선을 두어야 하며, 비록 교사들이 더 많이 힘들더라도 공동 프로젝트나 교과 간 연계 수업을 더 늘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이를테면 9학년 영어 수업평가는 개별에세이를 쓰는 대신 영어로 된 대사들을 학생 스스로 작성하여 연극하고 저녁시간에는 무대배경이나 장치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좋다고 함(현행 교과과정에서는 드라마 수업이 폐지됨). 또한, 학생들과의 면담결과, 학급의 재정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크리스마스카드를 직접 만들어 이웃들에게 판매하는 등 급우들과의 공동체성을 키우는 프로젝트수업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함

제목	일반고의 변화
원문제목	Lukio muutosten kynnyksellä
정보원	국가교육위원회(2013.11.14.)
주제분류	교육개혁, 교육과정/교수방법
키워드	일반고 재정, 일반고 교과과정, 일반고 특성화, 컴퓨터 기반 대학수학능력평가

- ◆ 전국 일반고 교사모임에서 경기침체와 미래의 변화에 대한 교수법과 교사-학생 간 친화적인 학습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논의함. 교육문화부 사무차관 아니타 레히코이넨(Anita Lehikoinen)은 중앙정부의 내년 일반고 재정이 37백만 유로로 올해보다 15백만 유로 감축되어 일반고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이를 인식하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함
- ◆ 교육문화부는 12월까지 일반고 특성화에 대한 법령을 준비하여 빠르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예비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014년 봄에 확정하여 2016년 8월 1일에 신 교과과정에 반영할 예정임. 새로운 일반고 교과과정은 평등과 무차별의 원리하에 다양한 교육공급자들을 활용하여 유연한 학업진로를 제공하며, 미래의 학습능력과 전인적인 인간을 기르는 교육뿐만 아니라 공동협력교수 및 참여교수를 강화시킴(최근 직업고와 일반고의 유연한 이동을 위해 직업고에 기본공통교과목 시수를 늘림)
- ◆ 교육평가위원회는 일반고의 강점은 교사의 전문성과 교수의 질에 있다며 후기중등교육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대학수학능력평가를 볼 수 있도록 교수와 학습에도 방법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함(컴퓨터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평가는 2013년 가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될 예정). 또한, 가정과 학교통학거리는 1시간 이내 거리여야 한다고 강조함

고등교육

제목	미국 하버드대학교도 핀란드 교육 칭송해
원문제목	Iltalehti: Taas suitsutusta Suomelle - Harvardissa hehkutettiin Suomen koulujärjestelmää
정보원	일파레흐띠뉴스(2013.1.6.)
주제분류	교육복지, 교육과정/교수방법
키워드	핀란드 교육, 미국 교육

- ◆ 최근 미국 하버드 프레스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하버드대학교에서 핀란드 방문 후 특별 특강을 했던 메사추세츠주 교육 담당 한 고위 관리가 핀란드 교육을 현재 미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함
- ◆ 그는 핀란드 교육의 성공의 이유로 적은 인구와 국민 대부분이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만을 사용하는 단일민족으로 다민족, 다언어 국가인 미국보다 교육에 있어 유리하다는 점을 들음. 또한, 핀란드 교육이 미국 교육보다 더 학구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 교사라는 직업이 인기 직업이며 석사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는 점, 모든 교육이 무상 교육이라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으며 이런 장점으로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이 가능한 교육, 이런 교육을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었다고 칭송함

제목	EU 지역 외에서 오는 유학생에게 등록금 징수될지도
원문제목	MTV3: Ei-eurooppalaisille esitetään lukukausimaksua korkeakouluihin
정보원	YLE 뉴스(2013.1.9)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교육재정
키워드	유학생 등록금

- ◆ 핀란드 국회의원 119명은 현재 EU 지역 외에서 오는 유학생에게 등록금을 징수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해 핀란드의 대표적 대학인 알토대학교와 대표적 전문대학(폴리테크닉)인 하가헬리아(Haaga-Helia)전문대학이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함. 이 법안에 대해 녹색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당이 지지를 보내고 있음
- ◆ 이 법안의 내용은 EU 지역 외에서 오는 유학생에게 앞으로 1년에 3,000유로~12,000 유로(한화 약 418만 원~1,670만 원)를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만약 유학생이 졸업

후 핀란드에서 취업할 경우는 등록금을 낸 만큼 감세 혜택을 받게 해 줄 예정임. 이러한 조항을 내세운 것은 핀란드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이 핀란드에서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임

제목	대입수능시험을 개인 컴퓨터로 응시
원문제목	Yo-kirjoituksista sähköisiä - oma kone sallitaan
정보원	YLE 뉴스(2013.1.16.)
주제분류	입시/평가, 교육개혁, 교육정보화
키워드	대입수능시험, 컴퓨터

- ◆ 올 가을부터 대입수능시험 중 일부를 종이 대신 컴퓨터로 치를 수 있게 됨. 2019년에는 모든 수능시험을 컴퓨터로 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임. 2016년에는 3과목 중 2과목은 학생 책상에 놓인 컴퓨터로 치러질 계획임. 컴퓨터는 자신의 컴퓨터 혹은 학교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시험 장소는 지금처럼 자신이 재학하는 고등학교 강당이 될 것임
- ◆ 핀란드 쿠오피오(Kuopio)시는 컴퓨터로 수능 시험을 700명도 모여서 함께 볼 수 있는 대형 시험장을 계획 중인데 수백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갖출 예정임.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문제로 동영상과 음성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제목	여초 학과의 남학생들, 입시 가산점 계획 환영 못 받아
원문제목	Tampereen yliopisto ei oitis lämpene mieskiintiöille
정보원	YLE 뉴스(2013.2.13.)
주제분류	입시/평가, 교육개혁
키워드	대학 입시, 가산점, 여초현상, 남학생 유치

- ◆ 핀란드 교육부 워킹그룹은 지난해 대학 입시 전형에서 일부 학과의 경우, 남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사범 대학과 사회복지관련 학과에서는 심한 여초현상 때문임. 이에 대해 핀란드의 대표적 대학인 탐페레대학에서는 성별에 의거한 가산점 제도는 기본권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로 실행되기 전 사전 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논평함. 학생들도 가산점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초현상이 심한 학과에 남학생을 유치하려면 가산점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피력함

제목	핀란드 대학, 전공 과목을 영어로 개설하는 학과 늘어나
원문제목	Kauppakorkeakoulu hylkää suomen - maisteriopinnot vain englanniksi
정보원	YLE 뉴스(2013.2.16.)
주제분류	교육과정/교수방법, 교육개혁
키워드	영어, 국제화, 전공 과목

- ◆ 핀란드 대학들이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며 전공 과목을 핀란드어가 아닌 영어로만 개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핀란드의 대표적 대학인 알토 대학은 올 가을 학기부터 시작되는 모든 석사 학위 과정을 영어로 진행할 예정임. 핀란드 교육법에는 핀란드 대학 학위 과정은 핀란드어 혹은 스웨덴어로 이루어져야 하며 추가로 다른 언어도 가능하다고 쓰여 있음.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알토 대학 관계자와 함께 영어로만 진행되는 학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짐. 또한, 영어 수업을 늘리며 국제화 전략을 세운 배경에는 석사 과정에 더 많은 외국 유학생 유치와 연구 부분에도 외국의 유망한 연구자들 유치를 늘려 대학의 격과 질을 한층 더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힘

제목	대입수능시험, 대대적 개혁 이뤄질 예정
원문제목	Yo-kirjoituksiin remontti: Kynistä luovutaan ja arvosteluasteikko uusiksi
정보원	헬싱킨사노맛 일간지(2013.3.10.)
주제분류	입시/평가, 교육정보화
키워드	대입수능시험, 컴퓨터 시험

- ◆ 핀란드 대입수능시험이 2~3년 뒤 크게 개편될 예정임. 2016년에는 이미 일부 과목을 컴퓨터로 시험을 치를 예정이며 2020년에는 모든 과목이 컴퓨터로 치를 예정임. 또한, 평가 방식도 바뀔 예정인데 아직 그 방법은 확정되지는 않음. 현재 채택이 유력한 평가 방식 중 하나는 따로 수능시험을 학생들이 준비할 필요가 없이 고등학교 필수과목 내용 숙지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함

제목	언어 몰입 교사 양성 교육 종료 위기
원문제목	Kielikylpyopettajien koulutuksen säilyttämiseksi etsitään keinoja
정보원	YLE 뉴스(2013.3.14)
주제분류	교원정책, 교육과정/교수방법
키워드	언어 몰입 교육, 교사양성

- ◆ 핀란드의 언어 몰입 교육(Language immersion)을 담당할 교사의 양성 교육 과정이 올해로 종료될 예정임. 핀란드의 바사 대학교(Vaasa Yliopisto)와 아보 아카데미(Åbo Akademi)가 연계하여 개설했던 교육과정이 새로운 신입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한 것임. 바사 대학에서 언어 몰입 교육과정 신입생을 마지막으로 받았던 것은 지난 2009년이었음. 대학 측은 언어 몰입 교사 교육과정을 지속시키려 노력하는 중임
- ◆ 교사 교육과정이 중단되는 주된 이유는 예산 부족으로 지금까지 언어 몰입 교육과정을 개설했던 대학 측은 다시 교육 문화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함. 핀란드 법무부 안나 마야 헨릭손 장관은 핀란드에서 언어 몰입 교육이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 중이라고 함

제목	핀란드 대학생 학자금 지원 풍성해
원문제목	Vertailu: Islannissa opiskelija pakkovelkaantuu
정보원	YLE 뉴스(2013.3.18.)
주제분류	교육복지
키워드	학자금 지원, 대학생

- ◆ 북유럽 대학생들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학자금과 비교해 볼 때, 핀란드 대학생들이 받는 지원 혜택(무상 학자금, 학자금 용자, 주거비 지원 등)이 다른 국가 대학생에 비해 비교적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나타남. 핀란드 대학생은 매달 298유로(한화 약 42만원)를 무상으로 정부에서 지원 받으며 주거비는 27~202유로(한화 약 4만원~29만원), 정부가 보증인이 되는 학자금 용자는 300유로(한화 약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이밖에도 학교에서 식사할 경우 급식 지원금도 한 끼 당 1.94유로(한화 약 2800 원)를 지원받음
- ◆ 아이슬란드에서는 대학생에게 다달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주거 비용 지원은 없으며 단지 학자금 용자만이 존재한다고 함.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학자금 용자 반환을 졸업 후 1년 내에 시작하여 핀란드 대학 졸업생보다 더 빠르게 반환해야 함. 매달 지원하는 무상

학자금 지원액의 경우는 덴마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스웨덴이며, 핀란드는 3위에 그침

제목	핀란드 3개 대학이 공동으로 핀란드 교육 수출 전담하는 회사 설립
원문제목	Yliopistot lähtevät yhteisvoimin ulkomaisille markkinoille
정보원	YLE 뉴스(2013.6.12.)
주제분류	교육과정/교수방법
키워드	교육 수출, 대학 연합 회사,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 ◆ 핀란드 주요 3개 대학(투르쿠 대학, 이마 수오미 대학, 탐페레 대학)은 공동으로 핀란드 학 교운영체제를 수출하는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이들이 교육 수출 상품으로 중점을 것 중 대표적인 것이 키바 코올루(KiVa Koulu) 프로젝트임. 투르쿠 대학은 이미 이 밖에도 교원대학 프로그램, 치의예과 바이오 재료 과정, 정신 의학과 학위 과정, ICT 기초 언어 과정, 미래학, 식품안전, 질 관리, eMBA과정 등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음
- ◆ 이 3개 대학 연합 회사는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 교육 모듈을 외국에 팔 예정임. 가장 가능성이 많은 상품으로는 핀란드 대학 학위 과정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이 회사는 미래의 고객은 외국 회사, 공기관, 대학과 연수나 학위 과정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 될 것임

제목	일과 교육, R&D 기능을 연계하는 고등교육의 전공별 특화교육과정 신설
원문제목	Työryhmä esittää korkeakoulutetuille uutta erikoistumiskoulutusta
정보원	교육문화부(2013.6.18.)
주제분류	교육과정/교수방법, 교육재정
키워드	고등교육기관, 전공별 특화교육, 교육과정 신설

- ◆ 교육문화부 실무진이 일과 교육 및 고등교육의 R&D 기능을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전공별 후기체험 특화교육과정” 신설을 제안함. 이는 기존의 폴리텍에서의 전공별 특화훈련이나 일반대학에서의 특화 수업과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과정으로 학위과정과 개방대학을 통한 평생교육과는 별개 과정임
- ◆ 고등교육기관이 전공 및 학과별로 최소 30학점(6개월)의 전공별 특화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음. 기업의 대표와 교육 참여자들이 재원의 주 부담자이며 타 부처들에서도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러 전문 직업분야들에 재원을 지원할 수 있음. 전공별 특화과정의 시작단계에는

교육문화부가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함. 수업료는 고등교육기관이 정하며, 공공재원이 교육에 할당되는 곳의 최소 수업료는 실비에 제한되어 수익사업으로는 불가능함. 폴리텍과 대학의 귀속재정모델은 2017년 1월 1일부로 변경될 예정이며, 전공별 특화과정에서 마친 학점은 변경될 재정모델을 따르게 됨. 특화교육과정의 질 관리는 기존의 질 보증 시스템에 포함되어 모든 계약과정은 교육부에 등록됨. 이러한 고등교육개혁안은 2015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제목	고등교육의 평등 주장
원문제목	Puheenaihe: Osta opiskelupaikka!
정보원	Aamulehti(2013.7.4.)
주제분류	입시/평가
키워드	고등교육 평등, 대학 입시, 입시훈련, 사설학원

- ◆ 탐페레의 한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학습의 기회는 부가 아닌 자신의 동기와 노력에 의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핀란드의 고등교육은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며 무료로 알려져 있지만 경쟁력 있는 학과의 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비싼 사설학원 훈련 코치 과정으로 퇴색되어 있음. 특히, 핀란드 남부지역과 같은 큰 도시에는 거의 모든 입시준비 학원이 모여 있어 부의 대물림을 야기하고 있음
 - 의학, 법학, 경영학과에 입학하기 위한 일반 입시준비 학원과정은 수천 유로까지 이르지만 이것이 반드시 입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이에 비해 대학 학생회에서 주도하는 예비교습훈련과정 비용은 적절한 금액으로 보임
- ◆ 국회의원 리스토 깔리오리넨(Risto Kalliorinne)은 지리적인 위치와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해 정부가 입시준비 사설학원과정을 없애야 하는 법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함. 2005년도 학생회 신문에 따르면 헬싱키대학교 입학생 가운데 법대의 99%와 의대의 81%가 입시훈련과정을 받은 경험이 있음. 또한, 이해가 아닌 암기roman 입시과정을 준비하는 일부 학과의 본고사의 시험을 바꿔야 한다는 일부 교수진의 주장도 있음

제목	기록적인 대학 지원자 수
원문제목	Korkeakouluihin ennätysmäärä hakijoita
정보원	Kouvolan Sanomat(2013.7.16.)
주제분류	입시/평가
키워드	대학 지원, 대학입시, 입시 경쟁률

- ◆ 2013년 대학입시에 일반대학(Yliopisto)에 73,200명, 응용과학대(Ammattikorkeakoulu)에 76,500명이 대거 지원함. 2012년에는 일반대학에 68,200명, 응용과학대학에 71,000명이 지원하였음. 올해는 대학경쟁률이 어느 때보다 심해 전체 대학 지원자 중에 1/5에 해당하는 총 33,800명이 대학입시에 합격함
- ◆ 경쟁률이 해마다 상승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등교육기관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지만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않고 대학을 가려는 학위졸업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전공을 바꾸고자 하는 재수생도 늘고 있기 때문임. 공동지원(joint application) 시스템을 개혁하는 2014년부터는 1지망에 지원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함. 2015년 입시개정부터는 대학학위가 없는 학생이나 대학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어 선발하고, 대학 재학생이나 학위가 있는 학생의 지원은 별개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

제목	외국 유학생의 고등교육 수업료 부과에 대한 이견
원문제목	Korkeakoulujen lukukausimaksuista laiha saldo
정보원	YLE(2013.8.1.)
주제분류	교육재정, 교육개혁
키워드	고등교육, 고등교육비, 유학생 수업료 미납

- ◆ 알토대학(Aalto University)은 2012년에 영어로 진행되는 석사과정 프로그램에서 22명의 외국 유학생에게 수업료를 부과하였으나 단 1명만 냄. 2013년 특별 프로그램에는 80명의 학생을 선발하였으나 13명만이 수업료를 내 자발적으로 내는 높은 수업료는 예상보다 훨씬 기대에 못 미쳤음. 알토대학 부총장 마르티 라에바라(Martti Raevaara)는 “학비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은 몇 되지 않고 외국학생들만으로 보편적인 결론을 낼 수 없다”고 하며,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 수업료로 적당한지는 말할 수 없으나 수업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대학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학생이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수업료를 지불하는 학생은 적다”고 주장함. 알토대학에 편승하여 수업료를 부과하는 라삐란따 공대(Lappeenrannan

teknillinen yliopisto)의 전략기획처 유하마띠 삭사(Juha-Matti Saksa)도 “일부 수업료를 부과한다 해서 합리적인 시스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함

- ◆ 알토대학 학생회는 “수업료 부과는 경쟁력 있는 유학생들을 몰아내는 격이다”라고 주장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학생회장 뼈아 꾸오스마넨(Piia Kuosmanen)은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 ◆ 시범적인 수업료 부과는 2014년 말에 종료되며 2014년에 시작하는 학생은 더 이상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음. 대학들은 교육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 끼우루는 8~9월 사이에 방안을 내놓을 예정임. 교육부에 따르면 핵심은 교육수출의 관점에서 핀란드 교육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하고 있다고 함. 라삐란따 공대는 2014년 이후에도 유럽연합(EU)국가나 유럽경제지역(EEA) 이외의 국가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하여 다시 수업료를 부과할 수 있으면 함. 알토대학 라에바라 부총장은 “학생이 실제로 수업료를 내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대학의 몫이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핀란드 사람이 지불하는 세금이 부유한 외국 유학생들을 위해 쓰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함. 한편으로 “대학랭킹이 이러한 시범적인 사업을 하도록 몰고 있지만 학생 스스로 수업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 시범적인 수업료 부과는 2010년도부터 시작되어 현재 9개의 일반대학과 12개의 응용과학 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연간 8,000유로 정도(한화 1,189만 원)의 수업료를 지불한 학생의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온 유학생이며 라삐란따 공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임. 현재 유럽에서 유일하게 고등교육비를 받지 않는 나라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임

제목	교원노조,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수출 제안
원문제목	OAJ esittää yhteistä koulutusviennin yksikköä
정보원	핀란드 교원노조(OAJ)(2013.9.12.)
주제분류	기타
키워드	교사교육, 교원노조, 교육수출, 교사 역량 강화

- ◆ 교원노조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수출을 조정하고 시장화할 수 있는 공동협의체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함. 대학들의 교사교육프로그램은 개별프로젝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의 교수법 개발에도 비합리적인 큰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함. 교사교육 훈련에 대하여 공통의 기본교육재원과 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수출의 성과를 가르는 것이라고

함. 최근 국가교육위원회도 이에 관한 교원노조의 제안서를 승인하면서 교원단체가 질 높은 교육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봄. 교원단체는 긍정적으로 교육수출을 환영하며 교사의 초기 및 지속훈련도 국제화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사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봄. 최근 교원노조는 전문가 등록시스템을 갖추고 해외로 진출하는 교사와 고용주의 고용문제를 돕기 위한 ‘교육수출 훈련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음

제목	내년부터 수능 최고 학점을 받기 쉬어짐
원문제목	Laudaturin nappaaminen helpottuu ensi keväänä
정보원	YLE(2013.9.17.)
주제분류	입시/평가
키워드	수능점수체계분류, 수학능력평가

- ◆ 수학능력평가위원회는 일부 수능 교과목에서 “제일 높은 성적(laudatur)”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수능체제를 개편할 예정임. 대학 입학시험에서 학생들을 쉽게 분류하기 위해 2014년 봄부터 개편되는 새 평가모델은 교과목에 관계없이 시험을 치르는 학생 가운데 5%는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96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모델은 가우스 정규분포 곡선을 이용하여 한 과목에서 학생 5%는 통과하지 못 하고(Fail), 5%는 가장 높은 성적(laudatur)을 받도록 하여 나머지 부분의 평균을 내는 방식이었음. 이전의 모델방식은 다양한 교과과정에서 단순 분류만 하도록 하는 어려움이 있어 채점체계에 대한 변화를 주고자 하는 시도이며, 대학 수학능력시험(matriculation test)을 대학입학기준에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학년별로 더욱 정확한 비교를 하기 위함임
- ◆ 모든 과목이 수학능력평가의 의무교과목은 아니나 일부 과목에서 학생의 능력 수준이 다른 과목보다 훨씬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위원회의 장인 빠뜨릭 스키테이닌(Patrik Scheinin)은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수학 II, 물리학, 화학 같은 과목은 소수의 지원자만 선택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과목이기에 채점등급을 매기는 것이 어렵다”고 함. “또 다른 문제는 대다수 학생이 평균점수를 높이기 위해 더 쉬운 과목을 선택하고, 해마다 다르게 다른 과목별로 수능을 보는 고등학생들이 늘고 있어 수능점수체계분류가 어렵다”고 함

제목	새로운 전문대 입법안 협의
원문제목	Uusi ammattikorkeakoululaki lausuntokierroksella
정보원	교육부(2013.10.21)
주제분류	직업교육
키워드	전문대 재정, 전문대 개정안

- ◆ 전문대(Ammattikorkeakoulu) 입법안과 관련하여 2차 개정안이 현재 성명서를 수집하고 있음. 기존의 『전문대설립법』은 내년에 종결되며, 개정된 기준안에 변경할 새 입법안이 발표됨. 이는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2003년 폴리텍 법안을 대신할 새 전문대학 입법안에는 2015년부터 전문대의 모든 재정이 현재의 국가보조금 체제에서 국가의 전문대학재정으로 일괄 제공됨. 따라서 기존의 지자체나 재단에 속했던 전문대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게 됨. 정부는 전문대 내에서도 연구 활동과 같은 학위수여는 지속하기로 함. 또한, 새 법안에는 전문대 학생회의 모든 학부생들이 일반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생회비 안에서 의료비 서비스와 관련된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011~2014년 동안 2단계에 걸쳐 실행되었던 전문대 개정안은 1단계에서는 전문대의 구조조정을 가속하는 교육법안과 교육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2단계에서는 전체적인 정부 시스템 안에서 전문대학 재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음

제목	전문대학생의 1/5이 전공을 바꾸기를 원함
원문제목	Joka viides korkeakouluopiskelija harkitsee alan vaihtamista
정보원	헬싱킨사노맛 일간지(2013.10.21.)
주제분류	기타
키워드	전과, 전공, 진로 적성, 학업과 일 병행

- ◆ 고등교육을 받는 1학년 학생의 10%가 전공을 잘못 선택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대 학생의 1/5은 전공을 바꾸기를 원함. 특히, 자연과학을 선택한 학생들 상당수가 전공을 바꾸기를 원하였고 사회와 보건 분야는 비교적 낮은 편임. 조사결과는 핀란드 대학 학생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2012/2013년 학기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신입생 2,200명이 조사에 응답함.
 - 학습교육연구재단(Otus) 연구자들은 “학생의 불만족은 그리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며 유하니 쓰리(Juhani Saari)와 아페 비에노(Atte Vieno) 연구원은 “학생상담뿐만 아니라 일반고와 직업고의 수업내용이 바뀌어 젊은이들이 올바른 적성을 찾도록 안내해야 한다

고” 조언함. 조사결과는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 가운데 일반대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지만 전문대의 진로는 학생의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밀접히 관련 있는 것으로 나옴. 학생이 기대하는 노동계약에 관해 학기 중에 60%가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이들 가운데 1/3가량은 서비스 부문에서 일한다고 함. 고용된 학생들의 대부분은 일의 난이도가 받았던 교육 수준보다 낮다고 여김. 이른 시기에 학업과 일의 병행은 미래의 고용에 이로움은 있지만 일반대 학생들은 전문대 학생들보다 일의 병행이 학업진척을 더욱 방해하는 것으로 나옴. 특히, 졸업할 시기에 일의 병행은 다른 일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함

제목	교육수출위원회 보고: 교육수출은 수익사업이어야 함
원문제목	Selvitysryhmä: Koulutusviennistä kannattavaa liiketoimintaa
정보원	교육부(2013.11.4.)
주제분류	기타
키워드	교육수출, 고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교육 수익사업

- ◆ 2013년 11월 4일 빼이비 리뽀넨(Päivi Lipponen)의원과 교육문화부 아니따 레히꼬이넨(Anita Lehto), 알토대학 야리 요기넨(Jari Jokinen)으로 구성된 교육수출위원회는 고등교육수출에 관한 평가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함. 이 연구 제안서는 직업교육훈련에도 적용됨. 또한, 7개의 교육수출 증진운영프로그램을 보고하며 외국학생들을 유치시키는데 학교의 질 관리와 학습이 핵심사항이고 교육은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함. 교육수출을 하기 위한 법에 장벽이 되는 법 조항들은 이미 개정됨. 교육수출 프로그램은 평가개발팀들에 현재 모니터링되고 있음

제목	외국인 학생들의 고등교육 수업료 징수 관련 논란
원문제목	Hallituspuolueet erimielisiä mahdollista opiskelumaksuista
정보원	YLE(2013.11.5.)
주제분류	교육재정
키워드	고등교육, 외국인 학생 수업료, 교육수출

- ◆ 교육수출의 관점에서 유럽경제지역(EEA) 밖에서 온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에 관한 수업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음. 이는 핀란드어나 스웨덴어로의 수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 교육수출 실무진들은 적어도 교수에 관한 비용은 수업료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

함. 현재 핀란드 시민이나 비시민권자들 모두에게 거의 모든 교육은 무료임. 보수당과 스웨덴인당은 수업료부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나 녹색당은 강한 반대의견을 보임. 나머지 3개 정당들도 회의적임

- ◆ 계획에 찬성하는 알토대학의 야리 요끼넨(Jari Jokinen)은 “우리는 제3국의 학생들을 위한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들은 대학운영에 중요한 더 많은 재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함. 알토대학은 2년 동안 영어로 진행되는 석사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업료를 징수하는 시범사업을 해 옴. 개발도상국에서 온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은 국가개발협력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음. 고등교육기관은 외국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음. 스웨덴의 고등교육 수업료 징수는 뛰어난 학생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으나 현 교육부 장관 끼우루는 교육수출을 지지함. 끼우루는 “고등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세계에서 흔한 일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별 매력이 없다”고 함. 위원회는 현 20,000명의 외국유학생이 2015년까지 60,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 현 교육부 장관의 관점은 스웨덴인당과 보수연합당인 총리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으며 기독교민주당과 좌파연합은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녹색당은 이에 반대함. 녹색당의 의장 오우띠 알랑꼬 까힐루오토(Outi Alanko-Kahiluoto)는 “수업료 징수를 관철시킨다면 머지않아 곧 교육 불평등이 올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협력개발재정이 수업료로 충당되어 사용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고 함. 교육부 장관 끼우루가 소속된 사민당의 부의장 에로 바이니오(Eero Vainio)도 “수업료를 징수해서 외국인 학생이 더 많아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며 끼우루에 대한 반대의견을 비침

제목	직업교육훈련 선 선발방식: 노동시장으로의 빠른 진입을 위한 입시정책
원문제목	Ammatilliseen koulutukseen pääsi joka toinen hakija
정보원	뚜룬 사노맛(2013.11.29.)
주제분류	입시/평가, 직업교육
키워드	노동시장 진출, 조기입학, 선 선발방식, 입시경쟁률, 직업교육훈련

- ◆ 대학과 전문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2014년 가을학기에 학업을 시작하는 지원자를 미리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지원자 명단을 공개함. 이러한 선지원 입학방식은 조기졸업을 통한 노동시장으로의 빠른 진출을 위한 것임
- ◆ 직업고학생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은 떨어졌으나 전체적인 대학 선지원자들은 50% 늘

어남.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선지원자 가운데 50% 이상이 2014년 봄 학기에 시작함(2,920명의 지원자 가운데 1,640명이 입학허가를 받음). 최근 공동지원자의 수는 입학기준이 변경되어 많이 감소하였음(이미 학위를 마친 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고 노동시장의 위축을 막기 위해 후속교육의 접근을 더 용이하도록 함). 조기입학 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산업부문은 사회보건, 관광호텔경영, 기술교통 분야임. 이 가운데 사회보건 분야 지원자가 가장 많아 지원자 가운데 35%만 입학허가를 받음

- ◆ 해마다 입시경쟁률이 높아져 전문대 지원자들 16,000명 가운데 3,270명이 내년 가을 입학허가를 받게 되며, 성인들을 위한 전문학교의 지원자들은 9,400명으로 이 가운데 1/5만 입학허가를 받아 지난해 지원자보다 6% 이상이 오른 수치임. 올해 대학 선지원자들은 1,185명이며 이들 가운데 1/5만 입학허가를 받게 됨. 지난 가을보다 46%까지 오른 수치이며 자연과학, 경제학, 정보공학분야만 선 입학이 가능하며 12월 10일까지 대학입학 여부를 결정해야 함

교육일반

제목	교육문화부의 2014년 예산안
원문제목	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n ehdotus valtion vuoden 2014 talousarvioon
정보원	OPM(2013.8.8.)
주제분류	교육재정
키워드	교육 예산

- ◆ 교육문화부는 2014년 교육행정부문 예산에 66억 유로를 배정함. 이는 작년보다 3천8백만 유로가 감축된 것임. 이 가운데 일반교육부문에는 9억7천4백만 유로를 제안하였으며, 그중 정부 전환금 8억4천6백만 유로가 제공됨. 유아교육과 기본교육 예산은 평등과 무차별의 원리에 따라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 간 협력 및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이게 됨. 특히,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급 규모를 줄이기 위해 60만 유로가 특별 책정됨. 또한, 2014년 중등교육단계 이민자를 위한 언어준비과정에 40만 유로를 별도로 책정함. 아동과 학생에 관한 복지법이 2014년 8월 1일부로 시행되며 기본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을 포함한 모든 중등교육에 박물관이나 미술교육을 담당할 큐레이터와 심리서비스들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지원이 대거 이루어지게 됨. 낙후된 학교와 어린이집 건축에도 6천1백만 유로가 지원됨. 이러한 정부전환금의 연간인상액은 1천3백 만이 될 예정임
- ◆ 교육행정부문 예산 가운데 직업교육과 훈련에는 7억3천5백만 유로이며 정부전환금은 7억2천2백만 유로임. 도제와 일터를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개발에 1천7백만 유로가 추가 지원될 예정임. 성인교육은 5억3천1백만 유로가 지원되며 이 가운데 야간에 시행되는 성인을 위한 일반교육부분은 1억6천5백만 유로, 후속직업훈련은 1억3천8백만 유로, 도제는 1억2천5백만 유로가 지원됨. 교사의 직무훈련에 2천5백만 유로 이상이 지원되지만 후속직업교육은 4백만 유로가 삭감됨. 고등교육 및 연구에는 26억 유로가 준비되었으며 일반 대학을 위한 정부재정은 19억 유로가 지원됨. 특히, 2014년부터 국가가 예산을 관장하게 될 폴리텍은 404만 유로가 지원됨. 대학과 폴리텍의 재정 지원은 교육의 질과 효율성 및 국제화에 따라 성과주의로 차별 예산지원 함

제목	공무원 한 달 월급이 평균 3,015유로
원문제목	Kunnan työntekijä ansaitsee keskimäärin 3 015 euroa kuussa
정보원	Aamulehti(2013.9.9)
주제분류	교원정책, 교육재정
키워드	교육공무원, 공무원 월급

- ◆ 핀란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지방공무원은 437,000명이며 평균 월급은 3,015유로임. 2011년 이후 전체인원 가운데 4,500명이 감축되었으나 사회 보건 부문은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함. 전체 지방직 공무원 가운데 77%가 정규직이며, 2000년대 이후로 정규직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남.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조사한 임금인상 폭은 평균 2.5%로 일반 시공무원들 가운데 3/4이 단체협약(KVTES)에 의한 공무원임. 직종별로는 보건소, 어린이집 교사, 사회 복지사들은 평균 2,657유로의 월급을 받고 초·중·고등학교와 응용 과학대, 직업학교, 기술직 교육공무원은 평균 3,732유로로 일반 지방공무원보다 높음

제목	소비자 협회: 기업이 협찬품으로 학교에 지나친 홍보
원문제목	Kuluttaja-asiamies huolestui: Mainonta ujuttautunut kouluihin
정보원	헬싱킨 사노맛 일간지(2013.5.7.)
주제분류	교육재정
키워드	기업 협찬, 소비자 협회, 상품 홍보

- ◆ 기업에서 학교 여러 분야에 협찬을 많이 하며 그 한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핀란드 소비자 협회 관계자는 기업이 아무런 연관 없는 서비스나 제품을 직접 아이들에게 선전하는 행위는 금지해옴. 하지만 무상으로 답지하는 기업의 협찬품을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함
- ◆ 핀란드 소비자 협회는 기업 협찬품은 상업성을 떨 수밖에 없으며 미래의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쉽게 홍보하려 한다고 우려를 표명함. 공정 경쟁 소비자협회와 교육청은 학교에서 기업 협찬으로 상품을 수령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이미 교사들에게 전달했다고 함

제목	학위나 직종이 급여에 영향을 미칠까?
원문제목	Kannattaako koulutus? Näin työntekijä pärjää maisterille
정보원	YLE 뉴스(2013.6.24.)
주제분류	교원정책
키워드	교사 급여, 급여 수준, 직종, 학위

- ◆ 핀란드 통계청과 노동조합의 자료에 의하면 전문직 중에서도 산업부문별 직업과 학위가 급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테면 건설업 인력은 초봉이 2,714유로(한화 403만 원)이며, 20년 이상 근속하였을 경우 1,384,624유로(한화 20억 5천 8백만 원)정도를 받음. 한편, 2012년에 건설업을 찾는 지원자가 12,605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1/4이 학생 신분에서 기업의 현장학습을 통하여 입사함
- ◆ 이에 비해 초등학교 일반 담임교사의 초봉은 2,500유로(한화 371만원)로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편임. 28년 이상 근속하였을 경우 856,130유로(한화 12억 7천만 원)정도를 받음. 하지만 인기가 많은 유아교육의 경우 2012년도 대학경쟁률은 14:1임(경력을 기준하여 수입 차이는 핀란드 통계청에서 계산함. 급여는 호봉과 휴가 급여, 진급의 가능성, 교대근무 수당을 포함한 것임. 근로능력의 기한은 노조에서 받은 정보이며 전문직은 한 직업에 계속 머문다는 가정에서 산정된 것임)

제목	코소보(Kosovo)에 핀란드 직업교육 수출
원문제목	Suomi sai merkittävän koulutusvientihankkeen Kosovoon
정보원	외무부(2013.8.7.)
주제분류	직업교육
키워드	교육수출, 직업학교, 교사역량

- ◆ 에스뵘(Espoo) 시청은 옴니아(Omnia) 직업학교와 함께 코소보 직업교육 개발 입찰권을 얻음. 이는 3년간 코소보 지역의 교수 질을 높이고 신 교과과정을 도입 및 개발하는 교육부문 쌍둥이 프로젝트(twinning project)로 유럽연합(EU)에서 4백만 유로(한화 59억 3천만 원)를 지원받게 됨. 또한, 오스트리아 문화부와 핀란드의 여러 교육부들이 함께 참여하여 코소보 교육부에서 프로젝트를 이행함. 그리고 코소보 프리스티나(Pristina) 대학뿐만 아니라 코소보 지역 교육 당국들도 함께 참여함
- ◆ 2008년 독립했던 코소보는 성 평등, 고용증진, 청소년복지개선에 관심을 두고 교육부문 개

혁에 박차를 가해 왔음. 외무부 프로젝트 전문가 헤이디 렘피넨(Heidi Lempinen)씨는 “코소보 정부청사와 교육부문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왔는데 쌍둥이 프로젝트로 말미암아 교육부문에서 첫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함. 프로젝트는 지역과 지자체 수준에서의 교과과정 개발과 교육부 직원 직무능력 향상, 학습 환경 개진, 관련된 프로젝트 개발 및 교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게 됨. 에스뵤 시장 유까 마 라(Jukka Mäkelä)는 에스뵤 시는 타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가치문제에 핵심을 둘 것이라고 함. 옴니아 직업학교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잠비아 등지에 교육훈련을 수출해 오고 있음

제목	교육수출에 대한 개발을 앞당김
원문제목	Lipponen vetämään koulutusviennin kehitystyötä
정보원	핀란드 교육부(2013.8.15.)
주제분류	기타
키워드	교육수출, 특별위원회

- ◆ 핀란드 교육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2010년부터 교육수출이 새로운 사업으로 성장하였지만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교육부 장관 끼우루는 이를 개선할 프로그램과 방안들을 검토할 특별위원회를 가동함. 이 위원회는 국회의원이자 미래위원회 회장인 뵤이비 리뵤넨(Päivi Lipponen)과 알토대학 개발담당관 야리 요끼넨(Jari Jokinen), 그리고 교육문화부 상임이사인 아니타 레히꼬이넨(Anita Lehikoinen)으로 구성됨
- ◆ 평가에 따르면 새로운 수출부문으로 자리 잡은 교육수출은 여러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래된 기업문화와 지원형태로 인해 그 개발이 저조하며 수출산업의 높은 투자에 비해 상품화가 낮아 그에 대한 결실도 미약하다고 봄. 현재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non-EU)와 유럽경제지역(EEA)의 학생들로부터 수업료 징수와 같은 일부 제약된 조건을 허용하는 실험들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있음. 또한, 끼우루 장관은 핀란드가 게임 산업과 같이 대학이나 타 교육기관이 기업과 연계하여 전문수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함.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수출에 대한 교육장벽들과 시범적인 수업료 징수, 교육수출 기회에 대한 학계의 견해와 미래학습과 교육수출에 관한 타 국가의 경험과 실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

연구자료 CRM 2013-168-5

2013 해외교육동향 _ 핀란드

발행 2013년 12월

발행인 백 순 근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주소 서울 서초구 바우피로1길 35(우면동)(137-791)

전화 : (02) 3460-0414

팩스 : (02) 3460-0117

<http://www.kedi.re.kr>

등록 1973. 6. 13. 제16-0035호

인쇄처 리드릭 (02) 2269-1919
